

금주의 기도

천지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패역한 세대가 하나님의 창조원리를 거스리며 악을 저지르고 있지만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누구든지 여인과 교함하듯 남자와 교함하면 둘 다 가중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 20장 13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7년 9월 16일 (토) 제 1650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복음주의 진영, 성경적 동성애/결혼 재천명!

미 언론, ‘내쉬빌 성명’ 소개와 함께 찬반 논쟁 보도

성경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고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이 다시 한번 천명됐다. 허리케인 하비, 어마의 비극과 샬롯빌에서 일어난 사건 이후로 더욱 불거지고 있는 인종차별이라는 난기류 한복판에서, 지난달 29일 복음주의 진영은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죄로 규정하는 “내쉬빌 성명(Nashville Statement)”을 내놓았다.

동 선언은 최근 수년간 정치는 물론 교회에서도 전면에 오른 성, 특히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와 관련해 서구 사회는 물론 교회에까

지 소용돌이 치고 있는 메시지들과 관련, 서구 사회가 현재 처한 현실에 응답하는 서문과 성경적인 14개의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이미 동성애를 인권 그리고 사랑으로 교회공동체가 수용해야한다는 진보주의 진영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심한 편견에 사로잡힌 동성애에 대한 두려움과 반감’을 표명한 입장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대치되는 ‘성명(http://www.theliturgists.com/statement)’까지 내놓으면서 심각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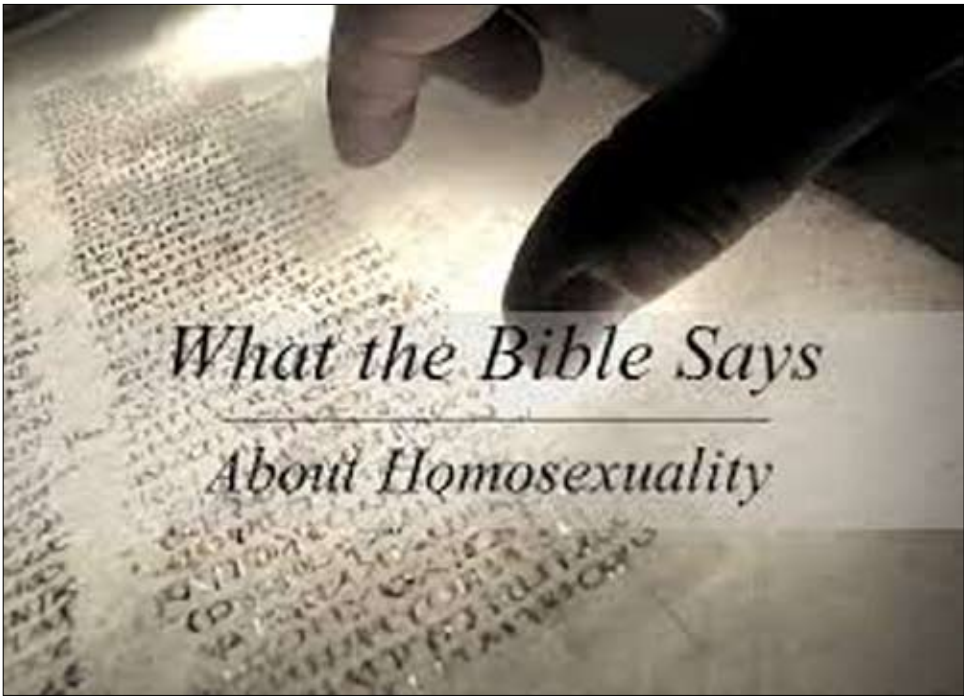
이번 성명은 한마디로, 성에 대한 생물학적 정의와 함께 전통적인 결혼을 재천명하고, 미국 사회에서 점점 더 증가되고 있는 LGBT 인정 분위기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

서문에서 "서구문화가 점점 더 포스트-기독교화 되면서, 인간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엄청난 개정이 시작됐다. 우리 시대의 정신은 그리고 우리 시대의 정신에 의해 더 이상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아름다움을 점점 더 알고 있거나 기뻐하려 하지 않는다"며, 동성애와 성전환은 "성경적 진리에서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하며 성경적 성도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천명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 성명은 공동으로, ‘성경적 남성성과 여성상심의회(Council on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 CBMW)’와 ‘남침례교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Ethics & Religious Liberty Commission)’가 내놓았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번 성명을 지지하고 있는 150명 이상의 복음주의 진영 리더들의 ‘합종연횡’(合縱連橫, 한전국시대 말경 소진이 진에 대항하기 위해 남북의 여섯 나라(한,위,조,연,제,조)를 동맹시킨 외교책 ‘합종’과 소진이 피살된 후 장의가 이들 여섯 나라를 동서로 묶어 진을 섬기게 한 외교책 ‘연횡’의 두 외교정책을 합한 말로,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적 각축전을 가리켜 쓰는 말: 편집자주)이 눈에 띄게 부각된다.

이들 중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교적 자문을 하는 리더들에서부터, 베스트셀러 목회자와 신학자들, 대형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복음주의 진영은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죄로 규정하는 “내쉬빌 성명(Nashville Statement)”을 내놓았다.

복음주의 진영의 차세대 리더십으로 부상되고 있는 ‘복음연합(Gospel Coalition)’까지 이례적으로 시대의 정신인 동성애 문화에 대적하는 증인으로써의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https://cbmw.org/nashville-statement/에 가면, 지지하는 리더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이들 중 잘 알려진 리더들은 다음과 같다:

Denny Burk(President, Council on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 John

Piper(Founder & Teacher, Desiring God; Chancellor, Bethlehem College & Seminary), James Dobson(Founder & President, Family Talk), Russell Moore(President, Ethics &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J. I. Packer(Professor of Theology, Regent College), Wayne Grudem(Research Professor of Theology and Biblical Studies, Phoenix Seminary),

〈3면으로 계속〉

설교를 망치는 “통념”에서 벗어나자!

처치리더스닷컴, 설교준비시 갖는 4가지 통념에서 자유롭게 되는 지혜 소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설교에 대해 하는 생각은 그것을 전할 때 사용하는 언 어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다. 많은 것들이 설교 준비에 영향을 준다. 비판, 찬사, 현재 성도의 필요와 시련, 본문의 깊이와 같은 것들 말이다. 그러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잘못된 통념이다.

가끔 우리는 올바른 사고를 하지 못할 때가 있다. 불안, 주변의 환경, 심지어 우리의 적으로부터 잘못된 사고의 패턴이 서서히 스며든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 위에서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다음의 네 가지 잘못된 통념은 설교의 방향을 바꾸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위험한 확신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깨어있고, 마음을 지키고, 자유 안에서 설교하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4 Popular—and Dangerous—Preaching Myths).

가장 좋은 설교 준비는 하나님 은혜 경험할 때 나타나

청중과 소통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지에 집중

열매 맺는 피드백...가르침 ‘깊이’가 순종의 ‘깊이’로 나아가도록

1. 준비 시간이 길수록 더 좋은 설교가 나온다.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전12:12).

주석을 연구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쓴 설교나 기록물을 읽으며 준비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더 영향력 있고 강렬한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이 아니다.

준비 시간이 길다는 것이 분명 훌륭한 설교의 요건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진실은 아니다. 사실, 수확 채감의 법칙(토지의 생산력이 어떤 정도를 넘어서면 자본과 노력이 증가해도 수확 증가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은 종종 어느 순간 설교 준비할 때 작동하고, 실제로 연구 시간이 길수록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언제나 가장 좋은 설교 준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나타난다. 책이나 연구 시간을 늘리는 것이 답이 아니다.

“내 아들이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2. 설교를 망치면 다음 주 예배 참석이 줄어든다.

아마도 많은 목회자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다. 한번이라도 심각할 정도로 처참한 설교를 한다면 교회가 잘못될 것이라는 두려움이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보다 공포에 기초를 둔 잘못된 추측이다.

성도들은 대체로 설교에 대해서 관대하다. 설교를 못해서 출석률이 10%에서 25%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정말 미비하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지만 설교를 망치는 좋은 목회자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보통 여러 요인이 오랜 시간 쌓이면서 출석률이 떨어지는 것이지만, 설교 때문이 아니다. 물론 복음이나 정통 교리에 반대되는 설교를 하면 예배 참여가 줄어들 수 있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문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라인) 박사
가령성당 사목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도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도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850 Skatto Pl, Los Angeles, CA 90025 admissions@wmu.edu 213) 388-1006

시론
최해근 목사

2면
종교개혁 500주년...무엇에 관심을 기울일까?
조진모 목사

7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8면
선교의 창
송종록 목사

13면
박해와 선교현장
오픈도어

14면

www.rptse.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과 ●

대학부	신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회학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문의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시론

신앙인과 노동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우리는 지난 주 노동절을 보내면서 오랜만에 자영업에 종사하는 교우들이 연휴를 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미국의 연평균 노동일수가 260일인데 비해 자영업을 하는 한인들의 경우에는 연평균 노동일수가 대부분 300-310일 정도에 해당된다. 주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 주 6일씩 일하고 있으며 주일 외에 휴일로 보내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로 얼마 되지 않는다. 그나마 주일이 되면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과는 달리 몇몇 업종은 주일에도 꼼짝없이 영업을 한다. 신앙인들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주일을 쉬는 직종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비신앙인의 경우에는 주일을 개의치 않고 영업을 하다 보니 1년에 거의 350일 이상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쉽 없는 노동을 하기에 어느덧 노동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무거운 느낌을 갖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의 관점인지 생각해보자. 흔히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라는 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주변을 보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수단으로써 노동, 즉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노동에 대해 연구한 자료들을 보더라도 노동이 시작된 출발점을 성경 밖의 사회에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정의한다. 먹고 살기 위해 노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노동의 출발은 어디일까? 인류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먹고 살기 위해 노동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 오히려 성경은 그 반대를 보여주고 있다. 아담과 하와는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명하신 '땅을 관리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노동을 했던 것이다(창1:28). 그 노동은 먹거리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피조세계에 드러내는 것이었으며 참으로 거룩한 행위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후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했다는 구실로 비난했을 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씀을 주시으로써 노동이 결코 악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셨다.

이러한 노동의 현장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심각한 굴곡과 변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가장 심각한 변질은 타락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노동이 '생존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락된 것이다(창3:17-19).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막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다. 이때부터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행하는 모든 노동은 환경적인 문제까지 초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타락으로 인해 모든 것이 뒤틀려진 노동현장의 모습이다.

이런 굴곡 된 노동현장은 예수님 제자들이 부름받기 이전의 모습에서도 발견된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 것도 잡은 것이 없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의 노동현장은 수고와 땀은 넘치지만 그 열매가 전혀 없는 고통과 허탈함의 자리였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고기를 잡게 했을 때, 그들은 두 배가 잡기게 될 만큼 많은 어획량을 거두었다. 그 엄청난 어획량 앞에서 베드로는 주님에게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떠나시도록 요청한다. 얼마나 놀라운 현상인가!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노동현장에는 손에 잡은 수확물로 기뻐하는 수준을 넘어 보이지 않는 자신의 영적인 깨어짐까지도 실감하고 무릎을 꿇는 예배가 이뤄지고 있다.

주님으로부터 노동현장의 회복을 절감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영적인 참 모습의 발견과 더불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이 말씀은 다른 곳이 아닌 베드로가 노동하고 있었던 노동현장에서 주어진 것이었고 베드로는 그 부름에 신실하게 응답하게 된다.

그렇다. 타락으로 인해 인간의 노동은 겨우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그런 수준으로 추락했다. 그런 노동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 오셨을 때 노동은 질적으로 다른 현상들을 만들기 시작한다. 노동 속에서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수고로운 노동 속에서 자신을 향한 창조주의 부름을 듣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주님이 바꾸어 가시는 노동의 자리이다.

그러므로 거듭난 신앙인에게 있어서 노동은 먹거리를 제공받기 위한 도구만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소명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저주스러운 노동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완성시켜 가는 노동으로 승화될 것이다. 그런 노동의 현장을 신앙인들이여 함께 꿈꾸며 만들어 가지 않으려는가!

thechoi82@yahoo.com

“내 일 열심히 하며 세상에 이바지한다!”

프로젝트 신디케이드, 에드먼드 펠프스 교수 기고 통해 “아메리칸 드림”의 재정립 필요성 고취

한동안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은 세계인의 꿈이었다. 신대륙 미국에서 중산층 이상으로 끊임없이 도약하려는 서민, 중하류층 사회의 역동성을 나타난 개념만이 아니었다. 전 세계에서 적용되는 생활 속의 꿈이자 희망이 아메리칸 드림이었다. 제3세계와 후진국에서도 미국으로 건너가 약조건을 이겨내고 성공한다는 얘기였고 안락한 중산층으로 대거 진입해가는 현대사회의 작은 신화였다.

그런데 '아메리칸드림'의 역사는 20세기로 종말을 고한 것 같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한마디로, 열심히 일해도 도달 할 수 없는 영역이 철옹성처럼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센서스 통계를 보면, 1979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인 소득 상위 1%의 소득은 275% 늘어났는데, 같은 기간 하위 20%의 소득은 18% 늘어나는 데 그칠 정도로 미국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계

층 상승 기회가 점점 사라지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 자료를 보면, 점수가 낮은 고소득 가정 학생보다 점수가 높은 저소득 가정 학생이 대학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지금의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이미 1968년, 제멋대로 기사를 쓰는 편견 가득한 언론인 헨터 톰슨은 “아메리칸 드림의 죽음”을 언급했다. 에드먼드 펠프스 교수(Edmund S. Phelps, Director of the Center on Capitalism and Society at Columbia University)는 2006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프로젝트 신디케이드(Project Syndicate)'에 톰슨에 관한 이야기보다 중요한 건 과연 아메리칸드림이라는 게 무엇인지, 미국이 왜 특별한 나라가 됐는지를 분명하게 짚어준다(This Thing Called the American Dream).



삶의 질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렇게 사다리를 오르는 경제 또한 미국만의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880년부터 1920년대까지 독일과 프랑스도 세계화로 인해 경제 구조 자체가 변했고, 그에 따라 활발한 계층 이동이 일어났다. 영국은 심지어 그보다 앞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

결국 아메리칸 드림이 특별한 이유는 로도에 담겨있다는 희망 때문도 아니고, 잘 나가

아메리칸 드림 본질은 무언가 성취하고, 그 과정에서 겪는 것에 대한 낙관과 희망 미국은 원하는 것 해보고 창의적 아이디어 실천에 옮기는 진취적 환경이 되어있어

거의 미국의 수준을 턱밑까지 쫓아왔다. 이어 두 차례 전쟁을 치르고 난 뒤 회복기를 거쳐 1970년대가 되면 독일과 프랑스가 다시 한번 미국과 비슷한 수준에 이른다.

아메리칸 드림은 삶의 수준이 나아지는 것, 즉 진보를 향한 믿음과 희망이라고 보는 경제학자들도 있다. 라즈 체티 교수는 부모 세대의 경제적 생활수준과 자식 세대의 삶을 비교해 이를 측정하려 했다. 1940년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젊은이 대부분, 정확히는 90%의 가계 소득이 부모 세대보다 높았다. 미국의 생산성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이에 따라 자연히 임금이 오른 게 반영된 결과이다.

하지만 1890-1940년, 미국에서만 생산성이 높아진 것이 아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전후 “영광의 30년”을 지칭하는 1945-1975년도 마찬가지로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가 두루 발전했다. 아메리칸 드림이 경제

발전과 그에 따라 일어나는 삶의 수준에서의 진보를 뜻하는 거라면 꼭 미국에서만 이를 수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없다. 유럽 사람들도 얼마든지 꿈꿀 수 있었던 것이다.

아메리칸 드림을 미국의 가지지 못한 서민층, 빈곤층의 꿈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다. 즉, 미국이란 나라가 극심한 부의 불평등, 소득 불평등을 어떻게든 해소해 다른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삶을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리라는 희망이다.

영부인 엘라노어 루즈벨트부터 마틴 루터킹 목사, 존 폴스, 그리고 리처드 로티에 이르기까지 여러 석학과 역사적 인물들이 이런 포용과 통합의 맥락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외쳤다. 하지만 그런 꿈이라면 역시 미국의 빈곤층, 미국의 소외계층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없다. 당사 유럽만 해도 아랍인들과 로마인들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현실을 타파하고자 한다.

리처드 리브스나 이사벨 소힐

같은 학자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더욱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동성'으로 정의한다. 즉 노동자, 서민, 중산층에 이르기까지 미국인들은 사회경제적 계층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산다는 뜻으로, 그 희망이란 열심히 일하면 높은 임금을 받고 사회적인 지위도 상대적으로 평균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꿈이다.

실제로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까지 기술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미국 경제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의

는 국가 경제나 공공 정책의 덕으로 삶의 수준이 높아지리라는 기대도 아니다. 그보다 아메리칸 드림의 본질은 무언가를 성취하고, 그 성취의 과정에서 겪는 것들에 대한 낙관과 희망이다. 자기의 지식을 활용해, 주어진 제도를 신뢰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이다. 미국인들의 가슴 깊은 곳에 자리한 무언가 성공해나갔다는 바람이 반영된 것이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유원정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코)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0(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포)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포)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항공운항과 남.여, 국제 조종사 면장과정

B.S in Science in Aviation Management/ Flight

항공학학사 학위 및 국제 조종사 면장과정

전공: 항공운항과, 헬기운항과, 운항관리사, 승무원과정

신청자격 : 고졸이상자 및 전문대 혹은 대학 중퇴자, 대학졸업자

전공에 관계없이 편입가능,

국제 항공 조종사 과정에 여학생 환영

항공학과 특징

미국의 타 항공학과와 비교하여 저렴한 수업료

미국연방정부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항공학 학사학위 및 FAA 국제조종사 면장

MBA 경영학석사과정

전공 분야: 글로벌비즈니스 리더십, 공공정책과 행정,

입학자격: 대학졸업자 혹은 동등학력자, 전공무관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학 박사학위

전공: 교육리더십, 조직리더십, 경영리더십

자격: 1) 대학, 대학원석사 학위 이상자 (전공관계없음)

Midwest Degree 학위과정

학사 -경영학, 항공학, 음악, 신학, 기독교교육학

석사 -MBA- 리더십,

MA- 음악, 신학, 영어교육, 상담, 교육,

박사- D.Min-상담, 교육, 목회신학, 선교,

DM- 음악 박사

DL - 리더십학박사- 교육, 경영, 조직리더십

학점, 학위취득 방법

- 1) 미국 유학을 희망 하는 학생은 SEVIS 1-20 혹은 J-1 Visa
-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계절별 세미나와 소집특강 및 Online 으로 학점취득 가능.
-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이 가능함.
- 4) 타 학교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함.

본교소개

본교는 1986 년 세계인재발굴과 양성을 위해 미 중부 도시 St. Louis 에 설립되어 개교 31 주년을 맞은 미국 대학교이며 워싱턴 DC 에 분교, 서울, 방콕, 페루에 Site 를 두고 있고 동문과 재학생은 세계 60 여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대학교이다.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대학코드 (USDE) OPE ID: 03528300)

미국,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학점과 학위를 인정 받는

미국정규 학위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USA (636) 327-4645,
usa@midwest.edu (070) 8690-2662 www.midwest.edu

복음주의 진영, 성경적 동성애/결혼 재천명!

〈1면에서 계속〉 R. Albert Mohler, Jr. (President,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Tony Perkins(President, Family Research Council), D. A. Carson(President & Co-Founder, The Gospel Coalition; Research Professor of New Testament,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John MacArthur(Pastor, Grace Community Church; President, The Master's Seminary & College), Sam Allberry(Editor, The Gospel Coalition), R. C. Sproul(Founder & Chairman, Ligonier Ministries), Rosaria Butterfield(Author of "The Secret Thoughts of an Unlikely Convert"), Francis Chan(Author & Pastor, We Are Church), Marvin Olasky(Editor in Chief, World Magazine), Ligon Duncan(Chancellor & CEO,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Christopher Yuan(Speaker & Author, Moody Bible Institute), Kevin DeYoung(Senior Pastor, Christ Covenant Church).

따라서 이번 성명은 최근 미국을 비롯해 지구촌 전체의 이슈가 되고 있는 성별과 성적취향에 대한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발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결국 이번 성명서의 핵심 내용은 타고난 생물학적 성별과 전통적인 결혼의 보존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과 연결되어 있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딜레마의 해결책은 하나님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 동 성명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잇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잇는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고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을 사람이 만드는 것은 어리석음 뿐만 아니라 절망적인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결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연합하는 것으로 결혼을 동성애 관계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부인한다”고 밝히고 “혼전이나 혼외 성교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모든 성적 일탈의 원천은 죄로 규정, “죄는 성적 욕망을 비틀고 동성, 이성적 음란에 빠지게 하며 이 같은 성적 견해를 기독교인이 따라가면 이웃을 해치게 되고 나아가 신앙을 부인하게 된다”고 하며 “동성애와 성전환을 동의하는 것은 분명한 죄가 된다”라고 했다.

한편 동성애와 동성결혼 그리고 성전환자들을 옹호하고 있는 자유주의 진영은 일제히 “반

내쉬빌 성명”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다.

먼저 미국장로교(PCUSA)는 지난 222차 총회(2016)에서 결정한 LGBT 허용 입장에서, 이분법적 접근 방식이 아닌 불가지론적 접근으로 다가서야 한다고, 동 성명이 교단의 공식 입장과 다르다고 발표했다(Theology & Worship responds to “The Nashville Statement”).

이외에도, 허리케인 하비와 어마의 공습으로 천재를 겪고 있는 시점에서 동성애 문제를 끄집어내는 복음주의자들의 의도가 잘못됐었다는 비판(The right words spoken at the wrong time are the wrong words)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비판은 바로 보수주의적 크리스천들이 이제 미국 사회에서 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30년 전이나 보수주의적 목소리가 통했지, 이제 연방헌법으로까지 보호받는 성 소수자들의 인권 신장에 더 이상 영향을 줄 수 없는 ‘구시대적 잔재’에 불과한 뉘etur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또 다시 동성애와 같은 성혁명 문화 코드에 따른 진보와 보수 진영의 논쟁은 재점화 됐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여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100:3)는 말씀처럼, 이번 내쉬빌 성명이 그리스도인에서 구원을 이루고 온전하게 되는 방편으로 요긴하게 유용되기를 기대한다.

명하고 단순한 용어를 사용하여 진리를 사람들의 마음에 관통시키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짚어주는 능력에 있다. 예수님의 단순한 가르침과 바울의 난해한 서신에 대하여 논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가르침의 ‘깊이’가 우리를 순종의 ‘깊이’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술적 설교가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항상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깊이 있는 설교는 듣는 사람을 움직여 통렬한 반응을 보이도록 하면서, 분명한 성경 본문의 토대를 쌓는데 눈에 띄게 정확해야 한다. 바울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강력한 이 두 가지 사항을 한 마디로 요약하였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이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2:2).

(Church Leaders.com)

설교를 망치는 “통념”에서 벗어나자!

〈1면에서 계속〉

그러나 정중과 소름돋지 못한 설교가 중죄는 아니다. 설교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집중하는 게 더 낫다.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고전3:6-7).

3. 피드백이 설교에 해를 끼칠 것이다.

많은 목회자들은 설교에 해를 끼치거나 ‘가려운 귀’(딤후4:3)를 파출 거 같다고 생각해서, 피드백이나 비판 받는 것을 꺼린다.

피드백을 받는 게 힘들 수 있지만 최고의 목회자들은 피드백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받고, 걸러야 성장한다는 것을 안다. 정직한 피드백을 주려는 사람이 주위에 없다면 설교는 성장할 수 없다.

〈2면에서 계속〉

장인은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자 온 힘을 다한다. 무역상은 물건을 싣는 배가 무사히 하역하는 모습만 봐도 힘이 쏙는다. 무언가를 해냈다는 그 자체가 이들에겐 큰 기쁨이자 성취인 것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거두는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어쩌면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과정일 수도 있다.

이러한 미국인만의 독특한 목표 의식은 여러 책과 극작품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어두운 이야기를 주로 쓰긴 했지만, 마크 트웨인은 자신의 작품에 등장하는 어린 주인공이 성취를 향해 가는 과정을 잘 그려냈다. 1885년 작품인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서 주인공 핀이 막판에 “자기 펼쳐진 미지의 땅에 환하게 불을 밝힐 거야”라고 말하는 대사가 대표적이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피드백과 비판이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반면에 열매를 맺는다면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피드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비밀은 (배우자 외에) 균형 잡히고 건설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할 현명한 상담자를 찾는 데 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잠15:22).

4. 깊이가 있다는 것은 학술적이거나 신학적 메시지를 의미한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침의 깊이’에 대한 말이 많다. 사실, 성도와 목회자가 사용하는 ‘깊이’의 정의는 같지 않다.

성도들이 가르침의 깊이를 각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깨달음을 주는 방법이라고 정의할 때, 많은 목회자들은 종종 신학적 깊이와 학술적 용어와 동일시한다.

그럼, 뭐가 맞을까? 답은 듣는 자의 몫이다. 설교의 깊이는 학술적 출처에 있지 않고, 분

할리우드 작가들이 쓴 영화 대사에도 성취를 지향하는 아메리칸 드림이 묻어난다. 1931년 작 “리틀 시저”에서 리코는 이렇게 말한다.

“돈도 좋지.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냐.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해. 너만의 길을 가란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어.”

원하는 걸 새로 해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 이를 실현에 옮겨볼 수 있는 진취적인 사고를 장려하는 환경이 밑바탕이 되지 않았다면, 모든 미국인이 성공과 성취를 꿈꾸는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미국인이 자신의 출신 배경이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아메리칸 드림은 미국을 대표하는 특징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기업가 정신, 무언가를 탐구하는 자세, 창의적인 사고는 단지 매력적인 것을 넘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미국인이 저마다 품는 목표와 꿈의 원천이 된다. 도시와 시골을 불문하고 모든 미국인은 자기만의 일, 사업을 하는 것을 바람직한 삶을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바람직한 삶을 살아 얻을 수 있는 게 단지 돈만은 아니다. 미국인이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이 모든 걸 꿈꾸고 노력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미국인의 철학과 삶을 한참 오해한 것이다.

결국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지혜는 은행 계좌에 돈을 차곡차곡 쌓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내 일을 열심히 하며 세상에 이바지하는 삶이다!

소망 칼럼

성령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박재호 목사

(브라질 세소망교회)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증인’이란 말은 ‘순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순교의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남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우리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 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으며, 복음 선교의 사명은 죽기까지 땅 끝까지 수행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직접 선교지에 가서 전하든지, 남을 내 대신 보내서 전하게 하든지, 혹은 문서나 영상 매체를 통해서 전하든지 선교비로 돈을 내놓아서 선교 사역자나 각종 선교단체 및 복음사업을 지원하는 것 등이다. 선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인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구원의 복음 선교를 등한히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얻고 죽으면 부활하고 천국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 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가 누구든지 그 자리가 어디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또 가족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항상 미소 짓고 온화하고 상대방의 행복과 기쁨을 생각하며 대화하고 격려하고 칭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또 직장이나 사업 관계에서는 정직하고 성실하며 상냥하고 친절함으로써 동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또 친구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겸손하고 친절히 대함으로써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또 불행한 사람들에게는 그를 동정하고 같은 처지로 내려 앉아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눔으로써 친구가 되어주면서 예수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또 아랫사람에게는 다정다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또 불의한 자에게는 원칙을 고수하고 법과 질서와 양심에 따라 행하되 그의 입장을 이해하고 죄는 미워하여도 사람은 사랑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또 좋은 일을 당하여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축하하고 함께 기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최대 영광은 순교자가 되는데 있다고 하였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바치면서 헌신하고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증거 하는 신앙 행위는 곧 순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을 증거 하기 위해 자기 몸을 던지는 것이 순교이다. 순교는 자기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대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설명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빛의 사자들인 것이다.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바란다. 죽기까지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 선교하기 바란다. 땅 끝까지 복음 들고 찾아가서 선교하기 바란다.

nammicj@hanmail.net

트리니티국제연합장로회 2017년 정기총회 공고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목회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목회자 여러분의 사역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교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 12회 교단정기총회소집을 공고하오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2017년 9월 19일(화) 오전 11시

장 소: 세상을향한비전교회(담임 김경희 목사)

3130 Wilshire Blvd. #403
Los Angeles, CA 90010
TEL: 213-507-8323(교회)

트리니티국제연합장로회

TRINITY INTERNATIONAL UNITED PRESBYTERIAN OF GENERAL ASSEMBLY

본교단 직영신학교 / 트리니티국제연합장로회신학대학및대학원 (714)767-1806

총회장 정영수 목사 (714)578-5791

서기 김성신 목사 (714)323-4203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피카소-주변을 황폐하게 한 사람

오래전 일이다. 미술을 전공하는 자매를 심방했다. 예배를 드린 후 자매가 차를 준비하기 위해 주방으로 간 사이, 벽에 걸린 그림을 보게 되었다. 그림은 초등학교생의 그림으로 여겨졌다. 그림을 보고 속으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학을 온지 수년이 지났는데 이런 정도의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림 하단에 싸인 이 있는데 Picaso(피카소 1881-1973)였다. 그 사인을 보니 그림이 멋스럽고 격조가 있어 보였다. 이런 것이 인간의 알파카인지 모르겠다. 하기가 불란서에 유학 후 미대 교수로 정년퇴임한 분이 이제야 그림이 조금 보인다고 하니 나 같은 문외한이 저런 대가의 그림을 어찌 알 수 있을까?

작년에 평소 가깝게 지내는 영국의 L목사님이 스페인에 함께 가자고 하여 한 주간을 지낸 일이 있다. 그는 콘도 회원이었기에 구라파에 있는 여러 곳의 숙소를 매년 청소비 정도만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간 곳이 바로 피카소의 고향인 스페인의 말라가(Malaga)이었다. 인구가 56만이 거주하는 해안가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였다.

나는 무엇보다도 이번 기회에 20세기의 유명한 화가 피카소를 밀도 있게 관찰 할 수 있어 좋은 기

회다 싶었다. 나의 관심은 피카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뮤지엄을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기를 소망했다. 예술가들은 하나같이 생전에 고난을 빚 삼아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의 천재성이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에 대중들의 몰이해 때문이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예술가에게는 몹시 고통스런 일이었을 게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돈을 벌 수 없음을 의미하고, 돈이 없다는 것은 삶의 고통스러움을 뜻하기 때문이다. 고로 생전에 인정받지 못했던 고흐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야 했는지 모른다.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컸을까 싶다. 그는 돈이 없어 결혼할 꿈도 꾸지 못했고 카페를 마시고 싶었으나 돈이 없어 스케치를 그려주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했으니 말이다.

피카소는 말라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로부터 그림을 배웠는데 아주 뛰어난 실력을 보여 아버지를 놀라게 했다고 한다. 16살에 마드리드의 산 페르난도 왕립국립미술학교에 들어갔으나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2년 만에 자퇴를 하고 미술 활동을 했다. 박물관에는 그가 어렸을 때 다녔던 학교의 학적부가 남아있었다. 그의 일생이 그림으로 요약되어 있다. 한 사람의 삶을 객관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그림들.... 인생은 누구나 객관적으로 가슴 서늘하게 조명 받을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온다 싶다.

그는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았다. 세계 1,2차 대전으로 인한 인류의 비참한 참상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보통 사람이 흔히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을 말이다. 그런 상황들이 그의 그림들에 고스란히 표현되었다. 그는 일찍부터 대중들의 인정을 받은, 예술가로서는 아주 드문 경우를 산 사람이다. 나는 그의 그림을 평가할 수 있는 실력이 없으니 다만 그의 성공 뒤에 가려진 삶을 나는 조명해 보고 싶었다. 성공한 예술가가 그 예술을 통해 과연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라는 점이다. 그것은 종교적인 관점으로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의 가정생활은 어떠했을까? 크게 성공한 사람, 누구보다 유명한 삶을 살아간 사람, 어떤 예술가보다 부요함을 누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피카소, 그는 평생 여러 명의 여인들과 동거 내지 결혼을 했다. 사람은 어떤 면이 위대하면 다른 면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는 경향이 있다. 일례로 시저는 로마의 여인들을 모두 자신의 아내로 여길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의 영웅담 때문에 여성 편력은 낭만적 일탈 정도로 역사가들은 가볍게 취급하는 것도 비슷한 유가 아닐까 싶다.

피카소가 처음으로 사랑한 여자는 모델 페르낭드 올리비에(Fernande Oliver, 1881-1966)였다. 그녀는 유부녀로 피카소와 동감이었다. 쾌활한 성격으로 피카소를 즐겁게 했다고 한다. 그러나 바람기 많은 피카소는 30세에 가냘프게 생긴 에바 구엘(Eva Gouel, 1885-1915)을 만나 사랑을 나누게 되면서 올리비에와의 관계를 청산했다. 몸이 허약했던 그녀는 1915년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죽음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피카소를 비난했는데, 평소 허

약한 마르셀을 피카소가 혹독하게 다루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병들자 혹 전염될까봐 혼자 이사를 가기도 했다. 마치도 유명한 지휘자 바렌보임이 아내인 천재 첼리스트 자클린 뉘프레가 28살에 다발성 경화증에 걸려 연주 활동을 접고 침대에 누워지내야 할 때 한 번도 아내를 찾아보지 않았다는 몰인정의 대가처럼.... 인간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의 음악이 어떻게 청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까 싶다. 그것은 명백한 사기행각이 아닐까?

세 번째 여인은 러시아 발레단의 단원이었던 올라 고글로바(Olga Kokhlova, 1891-1955)로 귀족적 아름다움을 지닌 여성이었다고 한다. 그녀는 피카소와의 사이에 첫 아들을 낳았고 곧 버림을 받았다. 당시 피카소는 열일곱 살 된 마리에레즈 발터(Marie Therese Valter, 1909-1977)에게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나이 차이가 28살이나 났다. 그녀를 붙잡기 위해 6개월 동안이나 쫓아다닌 끝에 아내로 삼을 수 있었다.

자신의 창작 활동을 위해서일까? 평론가들은 아내를 새롭게 얻을 때마다 작품이 달라졌다고 언급하지만.... 그렇다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여인들을 수단으로 삼았던 것은 아닐까? 칸트는 사람은 목적으로이지 수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말이다. 피카소는 그녀가 22살 때 딸 마리를 낳자마자 몰래 사진작가인 앙리에트 마르코비치를 만났고 곧 동거에 들어갔다.

그 후 친구의 소개로 만난 화가 요, 사진작가인 도라 마르(Dora Maar, 1907-1997)을 만났고, 또한 40살이나 아래인 프랑수아즈 질로(Francoise Gilot, 1921-)에게 추파를 던졌다. 피카소가 62세 때요, 그녀는 22살이었다. 두 사람은 곧 동거에 들어갔고 곧 남매가 태어났다.

그런데 이들을 취재하기 위해 찾아온 여기가 주느비에브를 사랑하게 되었다. 당시 그녀는 17살이었다. 이 사실을 안 프랑스와즈 질로

는 남편을 버리기로 결심한다. 항상 여인들이 버림을 당했지만 이번만큼은 피카소가 버림을 당해야 했다. 그녀는 법대 출신이었기에 모든 것을 확실하게 했다. 소송을 통해 남매를 피카소의 호적에 올렸고 피카소의 재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피카소의 여인에 대한 행각은 끝나지 않았다. 70살이 넘는 피카소는 40살이나 어린 자클린 로크(Jacqueline Roque, 1927-1986)를 만났다. 그녀는 언제나 피카소에 헌신적이고도 절제적인 사랑을 바쳤다고 한다. 그녀의 결혼 이유는 고상하지만 내용은 명성과 돈이 아니었을까 싶다. 피카소는 드디어 1973년에 세상을 떠났고 여인행각은 끝을 보게 되었다.

그가 죽은 후 그와 관계했던 여인들은 대부분 불행했다. 피카소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 테레즈는 그의 곁으로 가겠다고 목을 매달았고, 도라는 정신 착란증을 앓다가 자살했다. 자클린은 1986년 마드리드 전시회를 앞두고 피카소의 무덤 앞에서 권총으로 자살했다. 올라와 피카소 사이에 낳은 아들은 약물 중독으로 죽었고, 피카소의 손자 파블리토는 피카소의 장례식에 참석하러 왔다가 자클린의 강하게 거절하자 독약을 마시고 자살했다.

피카소는 주변의 여인들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두 불행하게 만들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런데도 그의 예술이 위대하다고 칭찬하며 찬탄한다.

1932년 칼 구스타프 옹은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분열증 환자의 심리를 보았다고 밝혔다. 분열증 환자들은 파편화와 분절된 선으로 대표되는 피카소의 큐비즘이 점점 더 비타협적이고 야만적인 색들을 통해 극대화 되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 그림을 열망(?)하는 것은 비정상인 아닐까?

피카소가 남긴 작품은 회화



1,885점, 조각 1,228점, 도자기 2,280점, 스케치 4,659점, 약3만점에 달하는 판화다. 아마도 돈으로 환산한다면 천문학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부자들이나 평론가들이 상정한 가격에 불과하지 않다.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화가의 그림을 가까이 하겠다 싶다. 이웃을 살리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린 생명 있는 그림을 말이다.

피카소의 손녀요, 파블로의 딸은 이렇게 절규했다.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을 집어 삼키고 절망에 빠뜨릴 권리가 위대한 예술가들에게는 있는가? 그들의 작품이 제 아무리 찬란할지언정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킬만한 가치가 있는가? 나의 가족은 저 천재가 처놓은 탓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자신의 작품 하나하나를 완성해 가는데 타인의 피를 필요로 했다. 나의 아버지, 오빠, 어머니 할머니의 피, 나의 피, 그리고 한 인간을 사랑한다고 여기며 피카소를 사랑한 모든 이들의 피. 그는 주변 사람들을 모두 황폐하게 만들었고 갑갑함으로 인도한 예술가였다. 사람을 살리는 화가가 아니라 죽음으로 이끈 사람, 그 이름 피카소!!!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이대우 목사

(필라한빛교회)

“길이 참으라”는 말은 인내하라는 말이다.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을성이 많은 민족이라고 칭찬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빨리 빨리’라는 사고에 자주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신경질 내는 일들이 많아졌다.

인내라는 것은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또는 직장생활, 신앙생활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 인내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아이를 키우다보면 참아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다. 또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참아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인내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인내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오래 참아야 한다. 지금 참지 못해서 화가 나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어떤 사람은 주유소에 차 기름을 넣으려고 차를 대는데 어떤 아줌마가 차를 비스듬히 세워놓고 재할용품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다. 화가 나서 경적을 울렸다. 그래도 여전히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후진해서 다른 길로 돌아갔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신앙인으로서 내가 왜 30초, 1분을 참지 못해서 경적을 울렸나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한다.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많은 죄를 범하게 하고 많은 상처를 준다.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할 제목이 된다. 친절을 베풀고 인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모든 것이 편리하고 즉석에서만 들어지는 인스턴트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이다. 이 시대에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갖기 원하면 당장

가져야 되고, 우리는 인내할 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인내하며 기다린다는지 꾸준히 참고 견딘다는지 하는 것은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말에 ‘우물가에서 송충 찾는다’는 말이 있다. 한국 백화점이나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에 뛰는 사람을 보았다. 그냥 타기만 하면 되는데 왜 뛰어갈까 놀랐다. 우리는 인내를 잃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사회는 언제부턴가 결과를

풍성히 소유하자.

야고보는 인내를 교훈하면서 농부의 인내를 소개하고 있다(7-8절).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주의 감람이 가까우니라.”

농부는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다. 농부는 기다리는 사람이다. 농

도 안 낟는다. 집도 안 산다, 취업도 안한다. 인간관계도 안 맺는다. 희망도 없다. 너무 참담한 것이다. 다 없다는 것이다. 다 포기한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자살률이 높아지고 일 많고 청소년들이 그 다음 많다. 꿈이 없어지니까 목표가 없어지니까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극이다. 인내하지 못하고 희생되는 삶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많은 복을 주셨다. 그러나 100세가 가까이 되도록 자녀가 없지만 불가능한 약속을 믿고 기다려 이사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것이다. 인내하는 자는 꿈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농부는 서두르지 않는다. 조금해 하지 않는다. 여유 있게 소출을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비가오기 전에 해두어야 할 일에만 전념한다.

그리스의 역언에 이런 말이 있다. “1시간의 인내는 10년의 안락이다” 참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

폴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려고 항해하는데 몇 날을 가도 육지가 눈에 보이지 않자 선원들은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고 되돌아가자고 소란을 피웠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항해를 계속하였다. 폴럼버스가 인내하지 못하고 그가 가진 꿈을 포기했다라면 오늘날의 아메리카는 없었을 것이다.

끝까지 잘 달려가야 한다. 인내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지금 참아야 할 일이 있다면 끝까지 참으라. 유명한 영국의 총리 윈

스턴 처칠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잊지 않을 말은 Never give up 이었다. 멈추지 말라. Stop 하지 말라. Stop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만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드시고 농부와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인생이 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반드시 성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인생은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 마라톤 경기이다. 너무 힘들어 금방 포기하고 싶어진다. 많이 힘들지만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은 영광이 주어진다. 우리 모두가 농부처럼 인내하고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한 일 모든 것을 소원하며 열심히 달려가는 인내의 사람이 되자.

“형제들이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밖에 서 계시니라 주의

어도, 병이 있어도, 가난해도, 모든 것이 부족해도, 다 소화시키면 그것이 다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 조금도 버릴 것이 없다. 다 쓰레기로 버리면 남는 것이 없게 된다.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다 잘라 버리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활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성령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버리지 말고 품어야 한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아갔다. 인내는 믿음의 보호자요, 화평을 유지시키고 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겸손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것이다.

우리는 인내의 지팡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오래 참아야 한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모든 인내를 누가 알아주는가 하나님 밖에 없다. 사람 앞에 이야기하면 따지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다 유익이 되는 것이다.

본회퍼는 고난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적이라고 말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라보면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 신상 우상숭배를 반대하다가 풀무불 속에 던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능히 구원하실 줄 믿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간다고 고백하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구약의 예언자들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하여 많은 박해를 받았다. 악한 세대를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말했다. 고난을 자원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순종함으로써 오는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회피해서 안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마10: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롬8: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9면으로 계속)

“길이 참으라”

야고보서 5장 7-11절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학교에서 직면할 수 있는 5가지 음란물 위험성과 예방책 5가지

어느새 어느백투스쿨(back to school) 시즌입니다. 이제는 초등학생 자녀들까지도 집이나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보게 될 수 있는 음란물이나 음란성 있는 성교육으로부터 오는 5가지의 위험성을 알려드립니다. 학부모들이 준비할 수 있는 예방책을 소개하며 자녀들을 철저히 무장시키시길 바랍니다!

리디아(엄마)는 초등학교 자녀들이 3명 있는데 그중 자녀 2명이 학교 교실 컴퓨터에서 프로젝트하다가 음란물에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그 자녀들은 부모가 미리 무장시켜줬기 때문에 컴퓨터를 즉시 끄고 선생님에게 알렸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많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보게 되기에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같은 학교에서 다음날

험한 실제 상황들과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음란물을 거부할 수 있을지 자녀들을 철저히 무장시키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이 가장 많은 노출이 되는 실제 상황 5가지와 예방책!

위험 노출1: 자유시간에 학교 운동장이나 학교 버스 안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상황. 학교 버스는 잠재적으로 음란물 극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위험노출이 높은 곳입니다.

예방책 1: 자녀들에게 음란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이에 맞게 건전한 사진과 나쁜 사진으로 설명해 주셔도 효과적입니다. 음란은 영적인 사탄의 울무이기에, 어느 정도 설명하시면 어린 아이들의 영혼이

위험 노출 2: 가장 흔한 상황-학생들이 학교 컴퓨터에서 숙제를 위한 사진을 찾다가 실수로 음란물을 볼 수 있고, 구글 세이프 안전 검색임에도 불구하고 음란물이 전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이 축구공 사진을 검색했는데 검색결과로 벗은 여자의 사진이 전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방책 2: 음란물이 학교 컴퓨터에 전시됐을 때 먼저 컴퓨터를 끄고, 선생님에게 즉각 얘기하고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마우스로 컴퓨터에서 많은 내려갈수록 음란물을 찾을 확률이 높아지기에 컴퓨터에서 어떤 이미지, 사진들을 찾을 때 스크롤다운을 제한하도록 자녀들에게 주의해 주세요.

참고로, Bing과 Google 검색을 비교했을 때 구글 검색 웹사이트에 음란물이 더 많이 전시되기에,

위험 노출 4: 자녀가 다른 학생들이 사용하는 숙여 표현이나 단어를 듣고 궁금해서 온라인에서 검색하여 포르노에 접할 수 있는 위험 매우 높습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앞에서 바보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모르는 용어들을 찾아보는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용어 대부분은 성적인(sexual)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검색하면 음란물이 전시됩니다.

예방책 4: 학교나 주위에서 모르는 단어나 표현인데, 왠지 기분이 안좋은 톤의 단어라면 ‘그 단어를 배우지 말거라’ 라고 자녀에게 그 이유를 잘 설명해주세요. 꼭 알고 싶으면 차라리 부모에게 물어보면 부모가 직접 찾아서 설명해주겠다고 알려주세요.

학교, 가정, 도서관에서 컴퓨터와 스마트 폰 통해 많이 접촉 즉시 교사나 부모에게 알리도록... 평소 자녀와 신뢰관계 유지

에 다른 3학년 학생이 같은 음란물에 또 노출됐다고 합니다. 비록 학교 컴퓨터라고 해도 밀려드는 음란물을 다 필터링(filtering)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리디아의 막내딸은 3학년 반에서 어떤 여학생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벌거벗은 사람들이 나오는 비디오를 자기에게 보게 했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됐다고 합니다.

리디아의 딸은 음란물의 위험성을 부모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 여학생에게서 들은 것을 선생님에게 알려져 다행히도 그 여학생이 양아빠로부터 받는 성적 학대를 빨리 막을 수 있었습니다. 리디아의 딸은 비록 8세밖에 안된 학생이지만, 음란물에 대해 무장 돼 있었기 때문에 같은 반 여학생을 더 심각해줄 수 있는 성적 학대까지 구출할 수 있었지요.

지난 8년간 오바마 교육행정부에 의해 부분별한 성교육과 남녀의 생물학적 성정체성을 완전히 혼돈 시킨 결과물들은 앞으로 더 많은 어린 어린이들을 혼돈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학교, 가정, 도서관에서도 음란물을 직면할 수 있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위

급방 이해하니까 너무 설명에 고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에게 설명을 먼저들은 자녀들은 그들 안에 강한 내부 필터와 영적 분별력을 갖고 학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행여 음란물을 우연히 접할 때 그것이 음란물인지 그들의 영혼이 먼저알기에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예방책 연습: 자녀와 상황을 함께 롤플레이(role play) 해보세요. 예를 들면 부모가 음란물을 갖고 있는 친구 역할을 하며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hey Tom, I wanna show you something fun from my phone”이라고 친구가 말을 건넬 때 “What is it that you wanna show me?”라고 자녀가 물어보도록 합니다.

만일 전화기에서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했던 학생의 대답이 “벌거벗은 사람들의 웃긴 모습”이나 비슷한 동영상 같은 것이면 “싫어. 난 그런 거 안 봐”라고 대답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한 친구가 무엇을 전화기에서 보여주겠다고 하는지 확실히 대답해주기 전에는 친구의 전화를 보지 않겠다고 얘기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자녀들이 구글 서치하는 것을 제한하시고 차라리 Being을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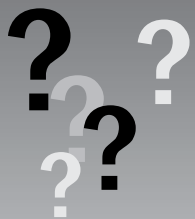
또한 지난 8년간의 오바마정책으로 인해, 지금 공립학교에는 동성애/성전환/변기독교 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친 정치적 가치관을 가진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에게도 세뇌하며 부분별한 성교육을 가르치기에 꼭 선생님들의 성교육 방향에 대해 알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위험 노출 3: 학교나 도서관 포털을 통해 구매한 database 서비스에서 학생들이 쉽게 음란물 서적을 찾을수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 포털을 통하여 음란물에 노출됐기 때문에 학교가 음란물을 허용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받을 수있기에 위험합니다.

예방책 3: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 및 도서관 포털에 로그인하여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직접 점검하시고 만일 음란물 서적을 찾으시면 학교 도서관 담당교감에게 즉각 알리고 학교가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세요.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 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세계 평화를 깨뜨리는 북한의 악한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지요? 우리교회 목사님은 성경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하시는 분이시지만 요즘은 설교 중에 한국 정치 문제에 대한 비판도하시고 북한 핵문제에 언급을 자주하시며 나아가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강단에서 복음의 말씀만 설교해야 하는 지요, 아니면 설교 시에 한국 상황이나 정치 문제, 군사 문제를 언급해도 되는지요?
-사우스베이에서 장

A: 신자와 국가, 국가 지도자와의 관계는 로마서 13장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1절에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 말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역사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착한 왕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악한 왕도 많습니니다. 성경에도 악한 왕이 많습니니다. 북쪽 이스라엘나라를 멸망시킨 앗수르 왕이나 유대나라를 3번이나 침공하여 성전을 불태우고 유대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 왕이 나오니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니다. 저 악한 느부갓네살 왕을 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 너무 도외시, 현실과 동떨어진 설교는 문제 있어

악한 자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악한 왕이 필요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는 선한 자를 통해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악한 자를 처벌하고 악한 자를 진멸하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더 악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사 10:5). 느부갓네살 왕을 진노의 막대기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더 악한 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사용하시는 얼마 후에 그 악한 막대기도 꺾으셨습니니다.

이에 대해 풀러 신학교의 신앙신학 교수인 김세운 박사는 그의 책 “바른 신앙을 위한 질문들”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시원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실존의 모든 영역에서 갖는 함의들까지 때로는 사회적인 불의나 비리를 지적하며 가르쳐야 한다. 예수님의 하나님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중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 것을 요구한다. 목회자는 하나님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위정자가 복음에 합당하게 정치하면 그길로 더욱 잘 가도록 격려하고 뒷받침하여야 한다. 그러나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복음의 말씀에 위배되는 정치를 하면 당장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어긋나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담대히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의 모범을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많은 보수적인 목사들이 정교분리를 말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직 강단에서 현실을 무시하고 추상적이고 영적인 설교만 합니다. 때로는 정치 권력자가 동성애와 동성결혼, 낙태, 친 이슬람 등을 주장하며 나라에 큰 재앙이 일어나는 데도 사탄의 통치가 실현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비판도 강단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는 많이 현실 정치를 외면하여 영적인 것만 가르치므로 기독교는 현실을 무시하는 종교가 되고 기독교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사가 너무 정치적인 언급을 자주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정치를 너무 도외시하여 현실과는 동떨어진 설교를 하는 것은 더욱 문제입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7 가을 학기 강의 안내

Sept 18-22(9월 18-22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ter

Sept 25-29 (9월 25-29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ter & Dr. Stephen Park

On Online Courses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Oct 9 - Dec 1(10월 9일-12월 1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Oct 30-Nov 3(10월 30일-11월 3일)

DI Cross-Cultural Teaching and Learn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Chicago, IL

Oct 23-27(10월 23-27일)

PM 8061 Pastoral Counseling(목회상담)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jik Lee(이관직박사)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v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사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F-mail: narkrc@grace.edu ntskoreanstudies@gmail.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이집트의 비샤린(BISHARIN)



수 단 과 에 리 트 리 아 그리고 이집트 일부 지역에 살고 있는 약 100만의 베자족. 이집트의 베자족의 수는 63,000명 정도이며, 아바브다어와 비샤린어를 사용하는 2개의 하위 집단으로 이루어지는데 언어의 이름은 그들 종족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들 두 집단은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단지 언어만 다르

다. 그들은 홍해 주변을 따라 살고 있으며 동쪽과 서쪽 나일강변과 그리고 룩소르, 카르낙, 아스완의 고대 유적지 사이에서 살고 있다. 어떤 이들은 이 도시들의 변두리에 있는 동굴에서 살기도 한다.

노아의 손자 구스의 자손들이 베자족은 4000년 이상 동안 현재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토착 아프리카인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아랍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현재 이슬람 신앙을 따르고 있다.

베자족은 정수리에 머리 솜이 많기 때문에 "퍼지 위지스(Fuzzy Wuzzies)"로 알려졌다. 그들은 작고 힘이 세며 깨끗한 몸매를 가진

검은 피부의 코카서스 인종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들의 토착어인 베다웨어(Bedawye)를 사용하지만 제1언어로는 아랍어를 말한다.

삶의 모습

비샤린족은 동물들, 특히 낙타를 돌보는 데 꽤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홍해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비샤린족은 낙타들뿐만 아니라 양, 염소, 버팔로 그리고 소떼도 기르고 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히스바(hisba)"라고 불리는, 두세 가정 단위로 정착하며 우물 근처 사막 쪽을 향한 기름진 토지에서 산다.

나일강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요 경제활동은 농업이다. 남자들은 수로와 관개시설, 땅을 일구는 일을 한다. 그들은 주로 면화와 사탕수수, 옥수수, 두라(이집트 옥수수), 밀, 참깨 그리고 다양한 과일과 채소들을 재배하며, 또한 닭과 같은 가금류를 키우기도

한다. 소년들과 나이트 여인들은 양과 염소 떼들을 치며, 어른들은 낙타와 같은 보다 큰 동물들을 돌본다. 마을에는 보통 수 백명의 주민이 있으며, 가족은 진흙 벽돌로 만든다. 보다 큰 마을에서 비샤린족은 아바브다족과 함께 살며, 벽돌 가옥이나 벽돌로 둘러싸인 텐트에서 산다. 모든 마을에는 남자와 방문객을 위한 구역이 있다.

큰 비샤린 마을에는 모두 이슬람교 사원이 있어서 함께 모이고 물을 저장하기 위한 공공장소가 된다. 남자를 위한 또 다른 공공장소는 "케이마(kheima)"인데, 이것은 아랍어로 텐트란 뜻이며, 마을 회의인 "마즐리(majlis)"를 여는 곳이다.

큰 마을 중앙에서는 여자들이 진흙으로 그릇과 도자기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개인적인 용도로 쓰거나 시장에 내다판다. 그들은 또한 많은 종류의 바구니를 짠다. 남자들은 새끼를 꼬아서 밧줄을 만들고

또 바다그물을 만든다.

아바브다족은 장거리 무역을 하며 그들 지역 안에 있는 주말 장에도 자주 간다. 시장에서 여자들은 실크로 짠 물건들과 과일, 채소 그리고 가금류를 판다. 남자들은 가죽과 농산물, 지역 공예품이나 수입품들을 사고 또 판다.

비샤린과 아바브다족은 서로 간에 자주 결혼이 이뤄지지만, 대다수는 그들의 각자 종족 안에서 결혼할 것을 강조한다. 두 종족 모두 혼인서약을 포함해 신랑과 신부를 위한 이슬람 규율을 따르고 있다.

신앙

이집트의 베자족은 수단과 에리트리아에 살고 있는 다른 베자족보다 더 이슬람 정통파의 관습을 비슷하게 따르고 있는 무슬림이다. 비샤린족도 또한 아직도 "전통 이슬람"이라 불리는 관습들을 행하고 있다. 그들의 신앙은 다양한 전통 미신들로 엮여져 있다. 예를 들

어, 다른 사람들에게 "악의 찬 눈조리"를 던졌으로써 그들에게 저주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 그들은 또한 사악한 "지니(jinnis)"(동물의 형상을 취할 수 있는 영)와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을 믿고 있다. 그들은 악령이 병, 광기와 재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믿는다. 그들은 사악한 마술을 행하고 동물제물을 신성한 이교도의 의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비샤린족 사역 선교사들은 없으며 그들 사이에 알려진 기독교 인도 없다. 뿐만 아니라, 그들 언어로 된 기독교 자료들도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관심을 가진 사역자들과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복음화 도구들, 보다 증진된 중보기도가 필요하며 그럴 때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사회 이념 양극화 갈수록 심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미국 전반에 걸쳐 사회 구성원들 간 이념적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열 양상은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당선되기 훨씬 이전부터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 뉴스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가의 주요 정책은 물론 사회, 문화적 가치관, 그리고 경제적 전망에 이르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국민 내부의 이견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반복과 적대감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들어 갈수록 정치적 이견 해소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설명해주고 있다고 WSJ는 7일 지적했다.

예를 들어 민주당원들은 공화당원보다 2배나 많은 숫자가 '결코 교회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공화당원보다 8배나 많은 숫자가 대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공화당원 가운데 3분의 1은 전미총기협회(NRA)를 지지한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원 지지자는 4%에 불과했다. 미국 사회의 다양성 추세에 대해서는 민주당원 가운데 4분의 3이 긍정적 반응을 보인 데 비해 공화당원은 3분의 1에 못 미쳤다.

지리적, 그리고 교육수준도 이념 성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4년제 대학을 거치지 않은 농촌 주민들의 경우 경제에 대해 더욱 비판적이며 사회 이슈들에 대해서는 보수적 성향을 보였다. 이들은 근래 민주당으로부터 공화당으로 지지 정당을 옮기고 있다.

한 세대 전과 비교하면 그동안 이념적 양극화가 얼마나 커졌는지 드러난다. 1950년대 공화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취임 8개월 후 직무수행에 대한 민주당원들의 지지도가 60%에 달했으며 상대 당 출신 새 대통령에 대한 교차 지지도는 빌 클린턴 대통령 때까지도 40% 이상을 유지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취임 8개월째 2009년 공화당원들의 지지도가 16%로 추락했다. 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완전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전체적인 국민의 지지도가 40% 선으로 하락한 가운데 민주당원들은 8%만이 그를 지지하고 있고 반면 공화당원들은 80%가 지지하고 있다.

구성원 대부분은 현재 미국 사회가 심각하게 분열돼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민주당원들과 비당파들은 주로 빈부 소득 격차에 따른 경제적 요인을 지적하고 있으나 공화당원들은 정치적 요인을 지적하면서 지지 정당이나 언론매체들이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WSJ/NBC 조사는 지난 5-9일 1천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오차 한계는 ±2.82% 포인트이다.

호주, 동성결혼 합법화 '격돌'

호주 사회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놓고 약 2개월간 양보 없는 대결 국면에 빠져들었다.

호주 연방대법원은 7일 전체 유권자를 상대로 동성결혼의 찬반 여부를 묻는 연방정부의 우편투표 계획에 대해 대법관 7명의 만장일치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고 호주 언론이 보도했다. 대법원의 결정은 애초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의 심리 뒤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하루 늦춰졌다.

맬컴 턴불 총리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모든 호주인이 동성결혼과 관련해 자신들의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아내와 함께 찬성표를 던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동성결혼 찬성 단체 일부는 동성애자와 그 가



족을 적대시하는 등 사회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쓸데없이 1억2천200만 호주달러(1천100억원)의 투표비용을 들게 한다며 대법원에 우편투표의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은 우편투표나 국민투표보다는 의회 내 결정을 선호한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현재 계획대로라면 우편투표는 오는 12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2개월간 실시되고, 그 결과는 11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우편투표 결과 찬성이 많을 경우 연방 의회에서 의원 표결을 거쳐 동성결혼 합법화를 최종적으로 결정짓게 된다.

현재 호주인들의 약 3분의 2는 우편투표에서 찬성의 뜻을 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연방 하원에서 1석 차이로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자유당-국민당 연립여당 내에는 찬반세력이 갈려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이미 일부 강경 보수파 의원은 우편투표가 끝내 실시될 경우 정부직을 내놓을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또 동성결혼 찬반세력 간에는 이미 지난주부터 치열한 홍보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벌써 과열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동성결혼 반대쪽 첫 TV 광고 주자로 나선 여성 의사는 "의료 윤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의사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원운동에 시달렸으며 신체적 위해 협박까지 받았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호주에서는 오랫동안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이 있었으나 2012년 연방 하원에서 부결되는 등 번번이 문턱을 넘는 데 실패한 바 있어, 이번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중국 교회, 종교 단속에 지하로 더 숨어들어

중국 정부가 종교 단속에 박차를 가하면서 중국 내 교회들이 소규모로 분화하는 등 통제를 피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중국 내 개신교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개신교 신자는 9천 300만 명 이상, 최대 1억1천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중국 정부가 허가한 공인 교회에 다니는 신도 수는 3천만 명에도 못 미친다. 나머지는 집 안 거실이나 공장 건물 등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가정교회'에 속해 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사실상 묵인해왔지만, 종교 활동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한 '종교사무조례'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중국 기독교도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조례에 따르면 불법적인 종교 행사를 위해 장소를 제공한 사람은 2만 위안(약 340만원)~20만 위안(약 3천4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불법적인 종교 활동을 주최한 사람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아, 단속에 걸릴 경우 최소 10만 위안(약 1천700만원), 최대 30만 위안(약 5천1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한 종교 집단은 기부금을 받을 수 없다. 온라인으로 종교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앙 교육을 할 수도 없다.

2012년 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 정부의 종교 탄압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라고 중국 내 종교인들은 전했다.

미국 내 종교단체 '차이나 에이드'(China Aid)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내 교회 수만 곳이 당국의 탄압을 받았다. 2015년 체포된 가정교회 지도자는 500명 이상이며, 지난해에는 600명을 넘어서었다. 시진핑 정부는 특히 해외 선교단체와 관련된 대규모 신도 모임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의 단속을 피하고자 하는 중국 내 가정교회들은 갈수록 소규모로 분화하는 추세이다.

'중국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정도로 개신교도 수가 많은 윈저우(溫州)에서는 지난해까지는 50명 규모의 가정교회를 찾은 것이 어렵지 않았으나, 이제는 신도 수가 20명을 넘지 않는 분위기이다. 신도 수가 150명을 넘는 위쉴(微信·중국판 카카오톡)의 종교 모임도 모두 30~40명의 소그룹으로 쪼개졌다.



다만 가정교회를 전면적으로 탄압할 경우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당국의 단속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중국의 가정교회에 다니는 한 신도는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가정교회가 있으며, 대부분의 가정교회는 사회의 불안보다는 사회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병주고 약주는' 트럼프 '6개월은 추방 격정말라'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불법체류 청년 88만 명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프로그램의 공식 폐지를 선언해 논란에 휘말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 이번에는 대상자인 '드리머'를 안심시키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 "다카와 관련된 모든 이들은 6개월간 신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아무런 조치도 없다"고 썼다.

이틀 전 다카 폐지를 공식 선언한 뒤 '아메리칸 드림'을 짓밟았다는 거센 비판이 제기되자, 후속 입법 조치가 진행될 6개월의 폐지유예 기간에는 당국의 추방 조치는 없을 것임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트럼프는 전날에도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뿐 아니라 공화당의 매우 보수적인 의원들도 후속 입법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카와 관련해 모든 이들이 만족하는 위대한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그들(드리머)은 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다카 관련 후속 입법은 여당인 공화당 안에서 의견이 갈리는 분열적인 이슈여서 드리머의 운명은 사실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치를 통해 상당 부분이 구제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상당수가 아메리칸 드림을 접고 추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통독 27년 격차 여전...통독 1인당 GDP, 서독의 73%

독일이 통일된 지 27년이 됐지만, 구(舊) 동독 지역의 경제가 구 서독 지역과 비교해 상당히 낙후됐다는 독일 정부의 보고서가 나왔다.

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리스 글라이케 연방경제·에너지부 차관 겸 신연방주(구 동독) 특임관이 발표한 '독일 통일 27주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구 동독지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구 서독지역의 73.2%에 그쳤다.

연방정부의 집중적인 투자로 구 동독지역에 대한 개발이 끊임없이 이뤄지자 경제적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 차이가 상당한 것이다.

글라이케 특임관은 이런 이유로 대기업의 부재를 들었다. 그는 "구 동독지역인들이 게으르지 않다. 그들은 구 서독지역인들보다 덜 똑똑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 동독지역이 황량한 계곡도 아니고 꽃이 피는 파라다이스도 아니다"라며 "여전히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구 동독지역이 10점 만점에 7.3으로 구 서독지역(7.6)에 상당히 근접했다. 통일 직후인 1991년 구 동독지역의 만족도는 6.3에 불과했다. 또한, 임금 수준도 구 동독지역이 구 서독지역의 98% 수준까지 높아졌다.

아마존 '미접촉' 부족민들 집단파살

아마존 유역 '미접촉 부족'들이 사는 땅에서 금광 채굴업자들이 한 부족민의 20%에 해당하는 10여 명을 학살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브라질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전세계 원시 부족민 절멸 방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서바이벌 인터내셔널(SI)이 밝혔다.



이 단체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브라질 서부 아마존 오지 잔디아투바강 유역에서 지난달 금광 채굴업자들이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10명 이상"의 미접촉 부족민을 살해했다. 이런 사실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다가 이들 업자가 콜롬비아 접경 마을의 한 술집에서 부족민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내보이며 살해 사실을 자랑하는 바람에 뒤늦게 알려졌다.

서바이벌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12월 발견된 불타 버린 주머니가 또 다른 학살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라질 정부의 토착민보호국 관계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브라질 검찰은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

부족의 크기에 비해 부족 말살에 해당하는 집단살해 사건이 일어난 곳은 지구상에서 외부 세계와 접촉하지 않은 미접촉 부족민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며 "미접촉 변경"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SI는 "최근 브라질 정부가 미접촉 부족민의 영역 보호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미세우 테메르 대통령 정부가 농장주, 벌목업자 등 "막대한 농업 분야 이익과 긴밀한 유대 속에 지속적으로 반 인디안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화살을 들렸다.

테메르 정부는 최근 아마존 열대 우림 가운데 텐마크 영토보다 넓은 지역을 환경보호 구역에서 해제, 이곳에 풍부하게 매장된 금과 철광석, 구리 등의 광산을 개발하려다 브라질 안팎의 비판을 사고 결국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로힝야 사태, 유엔 긴급회의

불교국가 미얀마 정부의 탄압을 피해 이미 37만명의 무슬림 로힝야족 난민이 목숨을 걸고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어가면서 국제사회에서도 더 이상 악화되

는 민족 갈등을 간과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3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 탄압과 피난 사태를 논의키로 결정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로힝야족 난민은 집계하기 힘들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음식과 물도 없이 피난길에 오른 난민이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디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11일 로힝야족 탄압과 관련해 "미얀마 정부가 인권조사관의 접근을 거부해 현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인종청소의 교과서적인 사례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침묵하던 미국 백악관마저 11일 "미국은 계속되는 버마(미얀마) 위기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도에 망명 중인 티베트 불교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도 로힝야족 박해에 대해 "부처는 불쌍한 이슬람 신자들을 도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격양되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미얀마의 최고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은 로힝야족 학살을 '가짜 뉴스'라고 일축하며 여전히 "테러범(로힝야족 반군을 지칭)과 타협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잇따른 로힝야족 거주지 방화를 둘러싸고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 무장세력을 방화의 배후로 지목한 사진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미얀마 정부가 선전에도 활용했던 이 사진은 현장 취재에 동행했던 일부 외신 기자에 의해 조작 사실이 드러났다. 기자에게 방화범을 제보한 미얀마 승려가 방화 현장을 포착한 사진이라며 공개한 사진속 등장인물들은 실제로는 이슬람교도처럼 꾸민 힌두교도로 확인됐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불교도와 이슬람교도 갈등의 중간지대에 있던 힌두교도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방화사건 조작에 휘말린 것이다.



2)말씀에 붙잡힌 사람

프레드리히 벅작은 위험에 처한 루터를 보름즈에서 바르트부르크(Wartburg)성으로 남몰래 안내하였다. 역경을 이겨내며 개혁의 길을 달려온 루터가 안식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혁가는 이곳에서도 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하였다. 수도사들의 독신과 개인 미사 폐지를 주제로 하는 글과 주석을 쓰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루터는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지내는 동안 독일어로 신약성경 번역을 시작하였다. 그가 번역을 위해 사용한 성경은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원문과 자신이 번역한 라틴어 역문을 대역으로 편집하여 1516년에 출판한 것이었다. 그 당시 교회는 초대교회 교부 제롬이 4세기에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을 사용하고 있었다.

루터가 번역한 신약성경이 1522년 9월에 출판되었다. 루터는 원어의 뜻을 최대한으로 잘 드러내는 단어와 표현을 위해 고심하였다. 동시에 자신이 번역한 책을 읽을 때 쉽게 이해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그 결과 주위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몇 번에 걸쳐 개정판을 내는 열정을 보였다. 상당히 많은 양의 성경이 인쇄되어 퍼져나갔다. 구약성경 번역에도 힘을 썼다. 결국 구약과 신약 합본이 1534년에는 출판되었다. 현대 독일어의 문을 연 루터의 성경은 무엇보다 종교개혁의 불을 확장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다른 중요한 동기가 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잠시 비텐베르크를 다녀온 후 성도들에게 반드시 성경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비텐베르크에서 잘 진행되던 개혁 운동이 급히 제동이 걸린 것이다. 그의 동료인 칼슈타트 교수가 과격한 개혁 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다. 구교의 신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나아가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났다. 급진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 내분이 일어난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가장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다. 바르트부르크 성에 10개월을 지낸 후 비텐베르크 시의 요청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는 8편의 탄원 설교를 통해 개혁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을 호소하였다. 나아가서 성경한 인간적 방법을 포기할 것과 성경에 의한 질서를 유지할 것을 호소하였

다.

루터는 토마스 뮌처(Thomas Müntzer)라는 급진적 개혁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는 중세 신비주의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성령의 직접 계시를 통한 내적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심지어 그는 성도는 성령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세속 통치

3)말씀 중심의 신앙과 삶

루터는 인문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아 언어와 고전문학에 능통하였다. 그가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문을 독일어로 번역할 수 있던 것도 그가 인문주의 교육과 친숙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성경을 비텐베르크 대학 커리큘럼의

올범은 복음의 온전한 가치와 필요를 드러내 주는 도구이다. 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며,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과 분리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는 신앙을 가지면 삶이 변화된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원리는 믿음과 행위이다. 죄인은 그 어떤 행위로도 의롭게

다. 평신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다.

성경을 통해 '이신칭의'의 진리를 깨달은 후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자신이 성경을 통해 변화를 받은 경험인 성경적 종교개혁을 더욱 힘있게 주도할 수 있었다. 성경이 드러내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신앙과 삶이 자연스럽게

교민의 수가 매우 적다. 작은 도시일수록 더욱 그렇다. 상대적으로 이민이 왕성하던 시기에 미국 땅을 밟고 정착한 교민들의 연령대가 매우 높아졌다. 1세 이민자들 가운데 별세하시는 분들과 정든 제2의 고향을 버리고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이주하는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교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고령화는 자연스런 사회학적 현상이지만, 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 파생된 다양한 실제적인 문제와 씨름하기 시작하였다.

미래의 교회 모습이 마치 안개에 가려진 것 같다는 사실로 인한 불안감이 무척 크다. 특히 영어권에서 자란 2세들을 언어와 문화적으로 자신들과 친숙한 공동체에 소속하도록 독립시켰지만, 차세대에 신앙의 계승이 가능할지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지속적인 이민교회의 갈등과 분쟁

이민사회는 아직 교회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민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거의 모두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간다고 보아도 된다. 언제부턴가 이민 사회가 이민교회를 걱정하게 되었다. 갈등과 분쟁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사용해야 할 에너지를 부정적인 일을 해결하기 위해 소모하고 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라는 말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부패한 심성을 지닌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때문에 흠이 없는 완벽한 모습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민사회가 이민교회를 향해 아예 기대감조차 포기하였거나 그리할 수 있다는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3)난제 해결에 위한 자의적 노력

망가진 것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고쳐야한다. 이것이 개혁이다. 이민교회는 현대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고 있지 않다. 교회 개혁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와 강연회에서 발표된 전문가들의 통찰력을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울 수 있다. 또한 각 교회마다 개혁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나아가서 각 성도들마다 나름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가능한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 생각된다.

진정한 문제는 따로 있다. 그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열정의 여부의 문제가 아니다.

(16면으로 계속)

종교개혁 500주년

- 무엇에 관심을 기울일까? (17)

-루터의 성경적 종교개혁과 이민교회(3)



조진모 목사 (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

“성령 통해 직접 계시...성경 필요 없다” 주장 반박

루터, 현장 실천적으로 체계화 된 성경적 개혁 실현

3가지 성경해석 원리-①예수 그리스도 발견 ②율법과 복음 ③믿음과 행위

권자의 지배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영주로부터 억압당하는 농민들을 부추겨 폭동을 일으켜 강도와 살인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루터는 성경이 없는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거부하였다. 평화를 촉구하는 루터의 권장에도 불구하고

핵심에 두었다. 심지어 인문주의에서 강조하는 학문 분야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는데, 성경에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루터에게 성경은 성도에게 필수적인 신앙과 삶에 대한 가르침을

될 수 없다. 다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된다.

루터는 성령의 직접 계시를 강조하는 급진적 개혁자들에 맞서서 성경을 강조하였지만, 그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변화된다는 것을 확신하였던 것이다. 실로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은 개혁자였다.

4)정리
1)루터: 오직 성경- 말씀을 최

이민교회 난제의 관점 시각과 해결방법 선택에 대한 답 공유가 필요

고 뮌처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복음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루터는 사회 권위자들과 구교로부터 개혁의 의도에 대한 오해를 받기도 하였다.

성경을 중심으로 개혁 운동을 펼쳐나갔던 루터에게 뮌처의 등장은 큰 걸림돌이 되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성경의 보급이 절실함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다. 그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었다. 성경적 개혁은 상아탑에서 계획되어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개혁의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체계화 된 것이었다.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로마가톨릭교회는 성경 대신 교회의 전통과 권위를 내세웠다. 성도가 성경을 직접 대하고 가까이 할수록 잃었던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 것이다. 그가 선택한 세 가지 성경 해석의 원리들에 그의 고민이 잘 반영되었다.

첫 번째 원리는 그리스도이다. 성경을 통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그러므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갖는 것을 성도의 신앙과 삶에 중심으로 삼을 것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원리는 율법과 복음이다. 율법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요구하며 죄인을 그리스도께 이끈다.

성령의 역사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 성령은 소통하시는 분이시다. 바깥으로부터 성도에게 전달된 복음이 내면에 이르도록 하는 장본인이다.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한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리 말씀을 듣거나 읽어도 이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

루터가 주도한 성경적 종교개혁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비중을 두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성경과 함께 읽을 수 있는 '소교리문답서'와 '대교리문답서'를 출판하였

중 권위로 삼다
2)교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분 앞에서 살아가지!

3. 개혁의 영향력에 대한 질문: 날카로운 소리인가, 낮아진 마음인가?

1)이민교회의 현실: 안개와 같은 앞날에 대한 고민
(1)반세기를 맞은 이민교회의 현실

미국 이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어느덧 반세기가 지났다. 교회의 역사도 그만큼 오랜 세월 흘러왔다. 언제부턴가 역이민이 유행하더니, 지금은 이민으로 유입되는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강사: 라흥채 목사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리더십 코멘터리 (49)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사람을 남기는 관계의 비밀

No man is an island

관계는 맺기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고 친한 사이일수록 상처받기 쉬운 것이 인간관계이다. 아무도 대화 나누는 이가 없어 혼자 있음에 대한 고독에 신음하며 대화 상대를 찾다가 스펀 메일에 답장을 하고 생을 마감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난다. 인생은 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의 병중에 가장 나쁜 병이 외로움을 가진 고독의 병이다.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인간이란 관계 속에서 향기로운 꽃을 피우며 관계를 통해 행복을 맛보는 존재임을 기억하라.

지식이 모자라 실패한 사람들은 전체에서 불과 15%밖에 안 되었고 나머지 85%의 사람들은 모두 인간관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인생에 실패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편 미국의 카네기재단에서는 5년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1만 명을 대상으로 ‘성공비결’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었는데, 위간 박사의 결과와 동일한 응답을 받았다. 즉 85%의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자료를 분석해 내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관계에서 좌절하고 실패하면 다른 것보다 더 힘들고 고통을 겪게 된다. 관계만 좋으면 큰 어

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듣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해야 한다.

셋째, 관계가 풀려야 삶이 풀린다. 사회생활과 교회 내에서 관계가 풀리면 사업이 원만해지고 신앙생활에 열매가 나타난다. 관계에서 성공하면 삶이 승리하기에 지혜로운 자는 관계를 깨는 비난, 거친 말, 분노, 미움을 삼가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기를 힘써야 한다. 당신은 관계를 삶의 본질로 여기며 사는가?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입을 다무는 사람인가? 대화로 풀기를 힘쓰는 사람인가?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깨진 인간관계를 회복함으로 교회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행동과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한다.

인간관계와 방어막

당신은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있는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가의 여부뿐 아니라 ‘힘들 때 믿고 의지할 사람들이 있는지’의 여부는 행복과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건강하고 같은 병에 걸려도 훨씬 좋은 결과를 보인다는 연구조사들이 보고되고 있다.

최근 심리과학(Psychological

성공적인 인간관계 솔루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남들이 하찮다고 생각하는 일도 절대 소홀히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작고 하찮은 일도 항상 꼼꼼히 챙긴다. 그들은 “내 몸이 피곤해야 상대방이 편하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는 리더들이다.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의 기대와 사랑을 받는다. 이들은 행복하고 성공하게 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반면 실패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신의가 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실제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자주 변하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의 무관심과 꾸짖음을 받는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세상을 홀로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①순수한 관심을 표현하라. 내가 호감을 보이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 주지 않는다. ②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름에 애착을 가진다. ③항상 미소를 가져라. 당신의 얼굴이 인격이다.

④대인관계에서 인간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특효약이 있다면 그것은 칭찬하는 것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영성칼럼

이희병 사모

(프린스턴한국인교회)



방심은 금물-다윗과 밋세바 묵상(6)

“나의 죄악을 말갭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히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시51:2, 3).

밋세바가 자신은 자기 집 밀폐된 곳에서 목욕을 한다고 한 것이, 다윗이 부하들과 같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낮에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밋세바를 내려다보게 됐다. 그리고 다윗은 사람을 시켜 누군가 알아보았는데, 우리아의 아내라 분명히 전해 주었건만 멈추지 않고 저를 불러다 정결케 해 동침해 애를 갖게 되는 불륜을 범한다. 문제는 저가 하나님께 범사를 물어보더니 저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고 부하들이 다 전쟁에 나갔는데 남아있다 사고를 쳤는지? 나름대로 이제 왕이 되었으니 이제 힘든 일들은 부하들 시키고 자기는 왕답게 맘대로 아무나 데리고 놀아도 되지 않겠는가?

방심은 금물이다.

마치 이방인의 왕들처럼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잠시 방학하고 자신의 정욕을 따르다가 일생 일대의 내리막길의 기점이 되었다. 죄는 죄이기 에 공의에 따라 그렇게 낳은 아이가 그리 기도했어도 죽었고, 하나님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던 충성스런 우리아의 억울함을 갚아 주셨다고 볼 수 있다. 그로 인해 물려 범죄했지만 암살됨이 저의 후궁들을 대낮에 범하게 따끔히 죄를 징계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공의를 타협하지시는 않으신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도 살아서 남에게 아픈 일을 했을 땐 자신이 반드시 생전에 되돌려 받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리는 법 중에 하나이다.

밋세바는 남편의 왕의 명령이니 임의대로 피할 수 있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쫓박없이 붙들려 주었다고 봐야겠지만, 결국 남편이 죽고 다윗의 아내가 되나 아이가 죽으니, 매달리는 다윗보며 우리아의 아내였던 시절은 흘러간 어제이고 이제는 많은 다윗의 아내들 사이에서 지기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 고 터지는 경쟁이다.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여인들이 하나같이 출신이 이방 여인 다말, 기생 라합, 모압 여자 롯,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인데 어떤 처지 형편이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이는 누구나 구원해주시나. 어떤 형편에서건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고 나오면 과거를 묻지도 탓하지도 아니하시고 누구나 받아 주시는 공평한 하나님이니.

주님! 얼마나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인지요, 주님 주님-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무궁합니다.

heenlee55@hanmail.net

깨진 관계 회복하려면 관계를 삶의 본질로 받아들이고 대화해야 신체적 접촉이 감염 잘 이겨내•하찮은 일도 챙겨주면 사랑받아

우리에게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장편 소설의 제목으로 잘 알려진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For Whom the Bell Tolls?)는 원래 영국 성공회의 사제이자 시인인 존 던(John Donne)이 쓴 시의 제목이다. 이 시에서 시인은 ‘모든 사람은 섬과 같이 떨어진 존재가 아니며(No man is an island) 모두 대륙과 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곧 나의 죽음이며, 내가 죽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누구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종을 울리는지 알아보려 하지 말라고 권면한다. 왜냐하면 그 종은 곧 나의 죽음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중심의 인생관은 데드라인을 정하고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한다. 이런 가치관 속에서 조직과 사회 심지어는 교회 속에서도 목표 중심의 사람됨을 추구해서 그 영향으로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관계중심의 가치관을 약화시키고 고독 유행병이 번지고 있다.

관계 회복의 솔루션

세계적인 명문 하버드대학교의 위간(A. E. Wiggan) 박사가 직장, 가정, 비영리 단체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전문적

려움도 그 힘으로 무난히 극복하지만 관계가 무너지고 깨지면 작은 난관도 넘기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깨진 관계를 푸는 해법은 무엇일까?

첫째, 관계를 삶의 본질로 받아들이라. 상대방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돈보다 관계를 중요시 여기라.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 것보다 사람을 얻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물질, 재산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가 많다. 교회와 조직은 물론이고 이웃 간에 심지어 부모와 형제사이가 물질 문제로 깨지기도 한다. 관계를 깨뜨려 본질에까지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 때 관계를 삶의 본질로 여기는 사람은 다른 것은 포기하더라도 관계를 붙잡을 것이다. 관계를 삶의 본질로 여기고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둘째, 대화를 시작하라. 관계의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을 찾아가 대화를 시작하여 깨진 관계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관계로 인한 실패자의 특징은 문제가 생길 때 입을 다문다는 것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고 1주일, 한 달을 보낸다. 대화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일이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하는 일이 꼬이며 부부 사이가 더 악화되고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관계의 문제를 만날 때 입을 다물지 말고 대화를 시작하라. 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상대방

Science) 저널에 실린 코헨(Cohen)의 연구에 의하면 ‘껴안기(Hug)’ 같은 친밀한 신체적 접촉을 자주 받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감염을 잘 이겨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연구자들은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이 평소 얼마나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지, 얼마나 자주 껴안기 같은 신체적 접촉을 하는지, 평소 얼마나 갈등과 스트레스를 겪는지 등을 측정한 후 참가자들을 감기바이러스(rhinovirus)에 노출시켰다. 이후 진행 경과를 살펴본 결과 평소 스트레스와 갈등을 자주 겪는 사람들이 감기에 더 잘 걸리고 증상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를 잘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스트레스와 감염 여부 간에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껴안기 같은 친밀한 신체적 접촉이 이런 효과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힘들 때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면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방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없다는 것은 큰 외로움과 불안감을 가져와서 감염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나를 챙겨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존재가 소중한 때이다. 당신의 삶에는 이런 좋은 방어막이 있는가?

만드는 관계특효약이다. 진심으로 그를 칭찬하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라. ⑤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는 영어로 under(아래) stand(서다)이다. 진정으로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그의 밑에 서야 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의 마음을 읽어내어 칭찬해 주면 얽힌 매듭도 쉽게 풀린다.

⑥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상대방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를 대하면 상대방도 당신을 그렇게 대한다. ⑦기대를 거는 만큼 격려하라. 상대방은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⑧끝까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경청이야말로 관계의 진주와 같다. 그것은 당신이 보여 줄 수 있는 최고의 경의이다.

⑨상대방의 실수를 지적하지 말라. 당신의 작은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열심히 하던 일도 멈추게 된다. ⑩잘못이 있을 경우 스스로 인정하라. 비난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마음이 편하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모래에 기록하고 인간관계에서 받은 고마움을 대리석에 새기는 지혜로운 리더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sondongwon@gmail.com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제3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3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4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17년 10월 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장영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 도서



당신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유석경 저/구장



광야의 소리, 윤종하
성서유니온



나는 아메리카의 한국인입니다
김준서 역/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감사 플러스 긍정 플러스
이영훈 역/아름다운 동행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나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유럽 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월드(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포스트(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천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도서 구입처), 로고스 선교회(회장 박도원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조이서적 213-380-8793 www.joyla.com

동부교계 게시판

east

커네티컷교협 2017 미스바 영적 대각성 부흥회

커네티컷한인교협(회장 김성길 목사)은 2017년 미스바 영적 대각성 부흥회를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사람”이라는 주제로 9월 15일부터 3일간 하트포드장로교회(담임 안성수 목사, 저녁 8시), 뉴헤이븐한인교회(담임 김도훈 목사, 저녁 8시), 커네티컷한인선교교회(담임 안성근 목사, 저녁 5시)에서 차례로 개최한다. 강사는 이종식 목사(베아사이드장로교회 담임, 국제제자훈련원 미주 대표).

▲문의: (860)906-8384

‘교회활성화 세미나’

뉴저지한인목사회(회장 박근재 목사) 교육분과와 러브뉴저지가 공동 주관하는 ‘교회활성화 세미나’가 9월 25일(월)과 26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뉴저지 길교회(담임 양혜진 목사) 선교관(432 Bergen Blvd. #8 Ridgefield, NJ 07657)에서 열린다. 강사는 박동건 목사(전 CRC교단 한인사역대표, CRM Korea 대표)와 양춘길 목사(뉴저지필그림교회). 등록비는 일인당 50달러(교재, 양 일간 점심 및 간식 포함).

▲문의: (201)519-8258한동원 목사, (201)694-3005박지우 목사

2017 시카고 뉴라이프교회 장학생 모집

2017 시카고 뉴라이프교회(담임 장준원 목사) 장학생을 모집한다. 응모 자격은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 및 소수민족으로 현재 신학교나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는 재학생이나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로 대학 재학 중으로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 대학원생은 8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 GPA B 이상으로 신청서(www.NLChicago.org에서 다운로드), 신앙 간증문 및 비전서(2페이지 이하), 추천서 2부(담임목사, 지도목사 혹은 지도교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인원은 15명이며 각 1500달러씩 지급한다. 마감일은 10월 31일. 수여자 발표는 12월 17일 본 교회 웹페이지에서 발표한다.

▲문의: (847)359-5200, scholarship@nlchicago.org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교회이전 및 임직 감사예배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담임 이만호 목사) 교회이전 및 임직 감사예배가 오는 17일(주) 오후 6시부터 열린다. 임직자는 장로 최민식, 명예장로 김진규, 집사안수 안중호. 새 주소는 188-12 73 Ave Fresh Meadow, NY 11366

▲문의: (718)933-1777

뉴욕기독교방송 무용단원 모집

뉴욕기독교방송(사장 문석진 목사) 무용단원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예배무용을 사랑하는 세례교인 이상의 전공자 혹은 비전공자로 단원입단 신청서 1부를 단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원서 마감은 9월 30일 오후 5시. 연습일은 화, 목 요일 오전 10시-정오. 장소는 뉴욕기독교방송국.

▲문의: (516)457-3308 김인순 단장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노회가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남노회가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KAPC 뉴욕일원 노회 정기노회

뉴욕노회

뉴욕남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노회(노회장 허윤준 목사)는 지난 12일 주미전교회(담임 이규본 목사)에서 가을 정기노회를 열었다.

개회예배는 허윤준 목사 인도로 기도 임영건 목사, 성경봉독 김재형 목사, 설교 허윤준 목사, 성찬예식 집례 문종은 목사, 축도 이규본 목사, 광고 이종원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허윤준牧사는 “바람과 비가 안 보여도!”(왕하3:9-2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회무처리는 허윤준 노회장 사회로 진행돼 목사안수 청원 1명(김재상), 목사고시 청원 2명(신동기, 이재환), 장로고시 청원(윈즈장로교회 7명, 황태현, 최원일, 차상남, 최시웅, 채영주, 함용식, 남형욱)을 보고했다.

또 예수부활교회 담임 김대진 목사가 뉴욕장로교회 부교역자로 청빙 받음으로 예수부활교회는 폐쇄를 청원했다.

뉴욕남노회(노회장 이재덕 목사)는 2018년 총회 호스트 노회로 총회준비에 돌입했다.

노회 소속 김재일 목사가 지난 41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에서 부총회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내년 5월 열리는 42회 정기총회는 뉴욕에서 열리게 되며 뉴욕남노회가 준비해야 한다.

지난 5월 센트럴교회에서 열린 정기노회에서는 뉴욕 총회를 위한 준비위원장으로 이재덕 목사를 선임했다. 이재덕 목사는 “내년 총회는 대형 호텔이나 뉴욕센트럴교회가 새롭게 신축한 예배당에서 열린다. 은혜로운 총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 회무를 통해 새로운 목회자 후보생 2명의 가입을 허락했으며, 이선용 목사의 교단이명으로 권영국 목사가 부노회장으로 보궐됐다.

〈유원정 기자〉

신규가입 재심, 동일교단 유권해석 논의

뉴욕교협 제 43회기 4차 임실행위원회

뉴욕교협 제 43회기 마지막 4차 임실행위원회가 지난 7일 오전 10시30분부터 뉴욕늘기쁜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할렐루야 뉴욕복음화 대회 결산보고 및 미자립교회 후원교회 발표, 수재의연금 모금, 천지창조박물관 견학, 종교개혁 세미나, 종교개혁 발상지 4개국 탐방 등을 보고했다.

먼저 △할렐루야대회 결산은 수입 총 137,052달러, 지출 총 74,730.66달러로 총 잔액 62,321.34달러를 보고했다. 교협은 대회 후 7월 15일 알리폰드 파크에서 위로모임을 가졌다.

△총 6천 달러를 후원한 6개 교회(각 1000달러 후원)는 뉴욕성원장로교회(한준희 목사), 뉴욕영안교



뉴욕장로연합회 제 5차 다민족선교대회에서 회장 손성대 장로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진정한 이웃사랑” ...강사 밥 페더린 OMS총재

뉴욕장로연합회 제 5차 다민족선교대회

뉴욕장로연합회(회장 손성대 장로)가 주최한 제 5차 다민족선교대회가 지난 10일 저녁 5시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렸다. 대회는 “진정한 이웃사랑” 주제로 메인 스피커로 밥 페더린 OMS총재를 초청했다.

회장 손성대 장로는 “땅끝까지 복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뉴욕 대도시에서 한인들과 더불어 살고 있는 다양한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게 하고, 협력과 화합으로 장차 세계선교를 이끌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대회사를 했다.

1부 예배는 인도 김영호 장로, 찬양과 경배 효신교회 찬양팀, 대회사 회장 손성대 장로, 찬양 뉴욕장로성가단, 설교자 소개 및 통역 황영송 목사(뉴욕수정교회), 설교 밥페더린 목사(OMS 총재), 헌금기도 박마이클 목사(한마음교회), 헌금송 중국교회, 축도 장성진 목사(뉴욕성결교회 원로목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밥 페더린 총재는 요한복음 8:12절과 마태복음 5:14-16절을 본문으로 “어둠의 세력을 향해 총공세를 취하라(Pressing into the Darkness)”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밥 페더린 목사는 북한에 대해 언급하는 중 OMS가 한국에 있는 5



뉴욕교협 제 43회기 4차 임실행위원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회(김경열 목사), 미래비전교회(김진화 목사), 양무리장로교회(김진관 목사), 주님의식탁선교교회(이종선 목사), 큰샘교회(이은수 목사)로 보고했다.

△허리케인 하비 수해지역 돕기

성금 모금방송을 AM1660 K-Radio와 함께 8일 오전 9-11시, 오후 1-2시, 2-4시 등 3시간대로 진행했다.

△천지창조박물관 견학은 9월 11-13일, 종교개혁 발상지 4개국 탐방은 10월 2-11일 진행된다.

또 △종교개혁 세미나를 9월 25일(월)과 26일(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교협회관에서 갖는다. 강사는 정부홍 목사.

또한 10월 23일(월)에 열리는 정기총회와 선거관리 일정도 발표했다.

임후보자 등록접수는 9월 11일(월)-15일(금)이며 19일(화) 임후보자 서류를 심사하고 22일(금) 임후보자 등록 및 총회를 공고한다.

안건토의에 앞서 김원기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회기 초에 제기된 조사는 특별한 보고사항이 없어 기록에 남기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또 1년에 3회 하는 감사보고를 해야 한다는 건의도 있었다.

안건토의 시간에는 신규가입 교회와 선거관련 규정에 대해 토의했다.

신규가입 신청은 6개 교회가 했는데 한 회원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



뉴욕교협 미자립교회 후원금 전달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교협 미자립교회 후원금 전달식

6개 교회 각 1천 달러씩 총 6천 달러 전달

뉴욕교협은 지난 8일 정오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미자립교회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회장 김홍석 목사는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본문으로 전한 메시지에서 “오병이여의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에게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셨으며 제자들은 말씀에 즉시 순종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 싸우는 중에 예수님이 오셨다. 풍랑 속에서도 뱃머리를 돌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 같이 하

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에 열심히 고군분투하시는 회원교회와 목사님

라 신학윤리위에 넘겨 재검증을 하고 총회에 올리기로 결의했다. 6개 교회(담임목사, 교단)는 다음과 같다.

뉴욕새벽별장로교회(정기태 목사, KAPC), 뉴하트선교교회(정민철 목사, PCA), 은혜와진리교회(심화자 목사, 독립교단), 포레스파크교회(나영애 목사, RCA), 아름다운제자들의교회(박영수 목사, ARPC), 가나안임성교회(김용해 목사, 오순절성결교).

선거관련 규정은 △헌법 11장 24조 1항(세칙 3장 11조 7항) “단, 현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임후보할 수 없다”를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회기) 이내에는 중복하여 회장이 될 수 없다”로 유권 해석하는 문제를 놓고 장시간 토론을 벌였으나 허윤준 목사가 나와 “자신의 부회장 출마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자신은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혀 마무리됐다.

이 문제는 허윤준 목사와 동일교단인 이재덕 목사가 41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 임후보자 등록금 면제는 김홍석 회장이 회기 초 공약으로 발표했던 것이었는데 이날 통과되지 못하고 현 세칙인 회장과 목사부회장 3천 달러, 평신도부회장 2천 달러 그 대로 실행키로 결의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양민석 목사 인도로 기도 이은수 목사, 말씀 김상태 목사, 광고 임병남 목사, 축도 김전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상태 목사는 “성경을 떠나면?”(시1:1-6)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떠나면 악인이 되며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나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의인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광고 시간에는 조원태 목사가 이민자보호교회에 대한 진행 및 계획을 보고했으며 김전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유원정 기자〉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2017 가을학기 개강부흥회를 마치고 교수들과 학생들이 함께 기념촬영 했다.

“변화된 사람” 주제, 강사 이용걸 목사

동부개혁장신 2017 가을학기 개강부흥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춘 목사) 2017 가을학기 개강부흥회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열렸다. “변화된 사람”이라는 주제로 강사는 이용걸 목사(필라델피아장로교회 원로).

6일 저녁 8시 퀸즈장로교회 수요일예배와 함께 열린 부흥회에서 이용걸 목사는 “바른 삶”(창47:1-2)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것”이라며 “바른 삶을 위해서는 첫째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둘째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 셋째 축복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걸 목사는 첫날 “아멘의 삶”(고후1:18-20), 마지막 날은 “성화의 삶”(렘47:1-12)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개강부흥회 첫날에 장학금을 수여했다. 장학금은 학장(1명), 이사장(1명), 교수(2명), 근로(6명), 동문회(4명), 영생(3명), 특별(2명) 장학금 등으로 총 19명에게 총 1만2천6백 달러를 수여했다.

〈유원정 기자〉



앞줄 왼쪽부터 직전 이사장 양춘길 목사, 정인국 장로, 안영훈 목사, 뒷줄 오른쪽부터 김정호 목사, 김성국 목사, 허연행 목사, 정성호 사장.

단비기독교TV, 새 이사장에 김정호 목사

단비기독교TV(사장 정성호) 신임 이사장에 김정호 목사(후러싱제일교회)가 선출됐다.

지난 9월 6일 후러싱제일교회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임기 3년의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김 목사는 “뉴욕과 뉴저지를 넘어서 미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복음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18년 동안 아틀란타한인교회를

섬겼던 김 목사는 지난 2015년 후러싱제일교회 6대 담임으로 부임했다. 그는 뉴욕에서 이민자보호교회, 새생명 살리기 운동, 북한동포 돕기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부이사장은 허연행 목사(프라이스교회)와 정인국 장로를 선임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위상 높이고 실력과 양적 성장 이루겠다”

KAPC 개혁신학교 이정현 총장 취임식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총장 이취임식이 9일 오전11시 빛과 소금의교회(담임 이정현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총장으로 취임한 이정현 박사는 “오늘의 시대는 신학교의 위기로 목회자의 위기의 시대이다. 미국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목회자 된 사람들이 5년이 지나면 80%가 목회를 그만둔다. 남은 20%도 앞으로 나에게 현재보다 더 나은 여건과 환경을 갖춘 직장이 있다면 그중 50% 언제든지 목회를 그만둘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목회자들이 목회하다 어려움 당하고 의욕을 상실한다. 신학교의 학생이 감소하는 시대에 우리 KAPC 교단은 한국의 합동총회의 개혁주의 신학을 이어받아 교단을 만들고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KAPC개혁장로회 대학 및 신학대학원 총장이취임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그는 “첫째, 신학교 위상 높이고 신학교가 수적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달 한교회 방문해서 사명자를 찾아내고 개혁주의 보수신학 전담인 우리학교에 사명

자들이 많이 찾아오도록 학교가 좋은 학교로 소문날 수 있게 하겠다. 또한 계간지 만들어 신학교 홍보하고 사명자를 불러오도록 하겠다. 둘째, 실력 있는 학생 키우겠다. 신

학과 성경을 잘 배워 나가도록 하겠다. 신학과 성경 바로 알고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고 헌신하겠다. 셋째, 학교의 대외적 위상이 높아지도록 보수신학 전담이 되도록 중점하겠다”고 말했다.

양수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총장 이취임식에서 류재일 총회장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옮겨 분별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말씀이 희석되는 시대 속에서 부끄럼 없이 인정받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러 참된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고 신학교 교단에 드러나는 열매가 되는 이취임식 되길 축원한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황은영 전임총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했으며 이임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이정현 취임총장에게 취임패를 증정했으며 취임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원사라 교수장학금을 학교에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조난단 에드워드 영성세미나

오렌지카운티 목사회(회장 김익현 목사)는 조난단 에드워드 영성세미나를 18일(월)과 19일(화) 양일간 갈보리선교교회(8700 Stanton Ave, Buena Park, CA)에서 갖는다. 강사는 정부홍 목사(예일대학교 조난단 에드워드센터 연구원)이며 시간은 월요일 10시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문의: (714)393-1555

충현선교교회 새생명축제 & 자녀교육세미나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는 새생명축제 & 자녀교육세미나를 17일(주)에 갖는다. 일정은 17일 오전 11시30분 새생명축제(강사 탈런트 신애라 집사)이며 오후 1시45분부터 4시50분까지 자녀교육세미나를 갖는다. 세미나 강사는 신애라 집사, 노신영 박사(미주어머니학교 강사, University of Christian Life World Mission 교수), 유진현(HIS 대학교 박사과정), 류승주(뮤지컬 배우, 방송인)이다.

▲문의: (714)893-1652

고 임동선 목사 1주기 추모행사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는 고 임동선 목사 1주기 추모행사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23일(토) 오후 7시 추모음악회, 24일(주일) 오후 4시 추모예배, 29일(금)부터 10월1일(주일) 말씀사경회(강사 김도일 장신대 교수), 30일(토) 오후 5시 경로잔치.

▲문의: (323)466-1234

OC한인교회 2017년 주계부흥회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는 2017년 주계부흥회를 ‘나 곧 나는 여호와라(사 43:11)’라는 주제로 22일(금)부터 24일(주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김진영 목사(실크웨이브미션 대표).

▲문의: (714)893-1652



주님세운교회 이원희 목사 초청 성서지리 말씀대성회에서 이원희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세상근심 몰려와도 주님 주시는 기쁨 가지라”

주님세운교회, 이원희 목사초청 성서지리 말씀대성회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는 이원희 목사(영신여고 교목실장/대전신학대학교 강사) 초청 성서지리 말씀사경회를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했다.

10일 오전 11시 본 교회 카리츠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박성규 목사 인도로 시작된 마지막 날 대성회에서 이원희 목사는 ‘주의 길을 선포하라2’(요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원희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들리게 하려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야 한다. 영상을 통해 설교하는 것은 청중들의 마음을 육도화하기 위해서”라 언급하며 “본문에 수가성어인 이야기에서 여인이 불꽃을 갖고 온 것은 세상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엔 불꽃을 가지고 가야 한다. 그런데 불꽃을 들고 갔다. 이는 세상에서 만족위해 물을 담으려는 것을 버려두고 갔다. 그것은 세상이 가져다주는 만족보다 더 귀하고 큰 만족을 받았기 때

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서 성경공부보다 스마트폰의 게임을 더 선호하는 것을 보게 된다. 교회에서 그들에게 무작정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하지만 그들에게 게임보다 더 큰 만족을 주면 게임을 안 하게 된다. 그 만족을 주는 자가 교회가 돼야 한다”며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것을 갈망하며 산다면 아직도 물동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을 걱정한다. 전도가 안되는 것도 근심 때문에 안되는 것이다.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심고 가꾸는 건 인간이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말하며 “세상근심걱정 몰려와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으로 넉넉히 이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제8회 송의코리아 정기연주회가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제 8회 송의코리아 정기연주회

제 8회 송의코리아(단장 박선옥, 지휘 이영두) 정기연주회가 10일 오후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열렸다.

박선옥 단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이민생활 속에서 대원 모두가 사랑과 믿을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1년간 열심히 연습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연주회가 모두 한마음 돼 주님께는 기쁨이 되고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동이 넘치는 귀한 연주회가 되길 소원한

다”고 말했다.

이날 연주회는 ‘복 있는 사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만유의 주’ 등 성가곡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산타루치아’ 등 가곡, ‘도라지꽃’, ‘친구여’, ‘행복을 주는 사람’, ‘폐지나 찢침 나네’ 등 가요와 민요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선사했다.

또한 LA총신OBN사립합창단(지휘 이영두)과 테너 전승철이 찬조 출연해 이날 연주회를 빛냈다.

〈박준호 기자〉

소망소사이어티 161차 소망교육세미나 개최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는 지난 9월 4일 제161차 소망교육세미나를 인랜드교회와 야고보/베드로 선교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노동절 연휴를 이용해 빅베어에 위치한 필그림 파인 컨퍼런스 센터에서 가진 두 선교회의 리트릿에서 열린 소망교육세미나는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40여명이 참석했다.

에런 댄 임상사회복지사가 강의한 ‘치매에 대한 이해와 예방’이라

는 주제는 노년기에 접어드는 참석자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주제 중 하나여서 집중도가 높았고,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주제의 유분자 소망소사이어티 이사장의 강의는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다.

인랜드교회 야고보/베드로 선교회는 후원금을 전달한 소망의 사역에 동참하며 격려했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이기철 총영사, 사우스LA 흑인시위 관할 경찰서장 면담을 한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기철 총영사, 사우스LA 흑인시위 관할 경찰서장 면담

한인 리커스토어 주변 순찰 강화 촉구 및 경찰서장과 핫라인 구축

최근 사우스 LA지역의 한인 리커스토어 앞에서 연쇄적으로 흑인들의 시위가 벌어진 것과 관련하여, 이기철 주 LA총영사는 8일(금) 2개의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지휘관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해당 업소를 방문하여 대책을 상의하였다. 이총영사는 8일(금) 오후 LAPD 사우스웨스트 경찰서를 방문, Lee Sands 서장으로부터 3일(주일)부터 A 리커스토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흑인 시위 상황 및 경찰의 대응에 대해 비공평을 청취한 후 사우스 LA는 25년전 4.29 흑인 폭동의 진원지임을 상기시키고 동지역에서 범죄자가 유지

될 수 있도록 한인 업소 앞 시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상황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줄 것과 그 전에도 예방차원에서 경찰이 해당 업소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시위 참가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주변지역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Sands 서장도 이에 동의하였다. 한편, 이 총영사는 흑인 시위로 고통을 받고 있는 A 리커스토어와 B 리커스토어를 각각 방문, 한인 업주들의 고통을 청취하고 총영사관도 업소 앞 흑인 시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돕겠다고 약속했다.

(기사제공: LA총영사관)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대학원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영어예배: 오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891 /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5:30 (월-토)	나성영락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 (청년) 새벽기도회: 오후 5:30 (월-금), 8시(토)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평일복음화: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 대학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a.org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일미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c.org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cscca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예배: 오후 1:20 영양권 (찬스-KDC, 침례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 (월-토) 금 요 예 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Los Angeles, CA 90248 www.dkp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젖어 있는 우리의 통일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다문화) 새벽기도회: 오전 5:40 (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영양예배: 오후 6:00 www.mjoc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45 (월-금) 오전 6:00 (토)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효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일미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 (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저녁 7:30 금 요 예 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수요영양예배: 오후 7:30 www.irvinechurch.org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다문화) 새벽기도회: 오전 5:40 (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영양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월-금), 6:00 (토) 은혜세계기도회: 365일 24시간 온로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50 (월-토) 성령대방망: 오후 7:20 (금)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전 11:45 토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오전 6:00 (토)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성) 평일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 (청년) 청년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리 보는 2017 교단 총회

〈3〉예장대신·고신·합신·기장

한국교계에선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통합 못지않게 대·신·고신·합신의 정서가 한 축을 차지한다. 이들 교단은 신학의 사변화(思辨化) 풍조에 맞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보수정통 신학’을 표방하면서 한국교회 보수 신학의 근간을 이룬다.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는 목회 다양성을 존중하는 대표적인 진보 교단이다.

대신, 교단 명칭 어떻게 될까

예장대신(총회장 이종승 목사)은 오는 11~14일 충남 천안 백석대에서 총회를 개최한다. 핵심 쟁점은 ‘교단 명칭이 바뀌느냐’ 여부다. 구 백석 측과 대신 측은 2015년 통합하면서 예장대신으로 명칭을 바꿨다.

하지만 당시 교단 통합에 반대하며 합류하지 않았던 잔류 인사들이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6월 재판부가 당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판결하면서 ‘대신’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2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 가입 청원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승 총회장과 예장대신이 한기연 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예장대신은 또 대외협력위원회 설치 방안, 연금제 시행을 위한 준비위 구성, 목회자 정년 75세로 연장(현행 70세) 등을 안건으로 다룬다. 사무총장 연임 규정, 법규연구위원회 설치, 대한 은혜로교회 신육주씨에 대한 이단연구조사 청원 등도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예장대신은 2015년 통합 당시 구 백석 측과 대신 측이 5년간 선거 없이 총회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올해는 구 대신 측인 유창국(구리제교회) 목사가 총회장을 맡는다.

고신, 다음세대 부흥방안 마련

예장고신(총회장 배길호 목사)은 노회 구역 재조정 안건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총회 내 각 노회 명칭이 행정 구역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세대’ 출석 감소 원인 분석과 성장 대안 마련 방안, 설교 표절 문제 등을 어떻게 다룰 지도 논의된다.

오는 19~22일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 강당에서 열리는 제67회 총회에서는 부총회장인 김상석(부산 대양교회) 목사가 총회장에 오른다. 부총회장 후보에는 김성복(부산 연산중앙교회), 신수인(경남

〈4.끝〉기침·루터회·그교협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총회장 유관재 목사)는 오는 18~21일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 휘닉스파크에서 107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침례병원·침신대를 살려라

최근 파산한 부산 침례병원의 회생 방안 논의가 뜨거운 쟁점이다. 총회 측은 지난달 28일 부산 지방법원에 ‘침례병원 파산선고 사건’에 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고 교단 차원에서 침례병원 살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침례 교인을 상대로 헌금을 모으고,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침례신학대교 이사회 파행 문제와 총장 공백 사태, 총회 연금제단 운영 문제 등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최근 교단 내 목회자 간, 교회 간 분쟁이 늘면서 이를 중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총회 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기침 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이번 총회에 상정할 안건들을 최종 결정할

양산교회), 오병욱(천안 하나교회) 목사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합신, 정년은퇴자 제직회원권 논의

예장합신(총회장 최철용 목사)은 오는 19일부터 2박3일 동안 경북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제102회 총회를 연다. 이번 총회에선 ‘70세 정년 은퇴자의 제직회원권을 위한 관련 헌법 조항 수정’ ‘전신신교 및 파문군에 대한 이단판단 조사 연구’ 등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이 밖에 예장합동 ‘두날개’ 프로그램과 기장 교단 임보라 목사에 대한 이단성 조사 청원 등도 다룰 예정이다.

총회장 선거에는 부총회장 박산열(인천 송월교회) 목사가 나선다. 총대 282명 가운데 과반을 얻어야 한다. 또 목사 총대 141명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최다 득표자

방침이다.

현재 기침 총회장 후보로 출마한 기호 1번 안희목(공주 꿈의교회) 목사와 기호 2번 박종철(전주 세소망교회) 목사 간 선거운동이 치열하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현재 교단 내 현안 해법이나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루터회, 종교개혁 500주년 사업에 집중

기독교한국루터회(총회장 김철환 목사)는 다음 달 12~13일 경기도 양평 불륜비스타에서 제47차 정기총회를 연다. 같은 달 28~29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대회를 주관함에 따라 이를 위한 진행 보고와 예·결산 승인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밖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학술강좌, 교리교제 편찬 작업과 루터 전집 출간 등 종교개혁 500주년 관련 논의가 이어진다.

총회장과 부총회장 등 임원진

를 부총회장으로 선출한다.

기장, ‘양성평등위’ 변경?

기장은 오는 19~22일 경북 경주 현대호텔에서 제102회 총회를 진행한다. 주요 안건 가운데 ‘양성평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는 의견이 나왔다.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는 ‘양성(sex)’에서 다양한 성의 종류를 인정하는 ‘사회적 성(gender)’으로 재해석하자는 것인데 격론을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 동성애자 교인 목회를 위한 연구위 구성과 성윤리 규범 채택, 교회 내 성폭력 금지와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도 다룰 예정이다.

총회에선 부총회장 윤세관(광주 풍암계림교회) 목사가 총회장에 오른다. 부총회장엔 후보자가 없어 총회 개최 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도 새롭게 구성된다. 4년 임기인 총회장은 총대 80여명이 15년 이상 재직한 목회자 전원을 후보로 추천해 선출한다. 한영복(서울 북음루터교회) 진영석(인천 소명루터교회) 김은섭(서울 도봉루터교회) 목사 등이 총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교협, 종교인 과세 대응책 마련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그교협·총회장 신조광 목사)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충남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제82회 정기총회를 연다. 총회에서는 ‘동성애·동성혼 개헌 반대’ ‘교회일치운동과 한국 기독교연합(한기연) 가입’ ‘종교인 과세 발효에 따른 대응’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19일 오후에는 총대와 회원교회 재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종교인 과세 관련 세무전문가 특별 세미나’도 진행된다.

현 회장 신조광(서울 보람교회) 목사, 부회장 박우삼(서울 주사랑교회) 최연기(고양 신덕교회) 목사가 유임돼 82회기를 이끌어갈 전망이다.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다시 말해 교회로 향하는 새신자가 줄고 있고, 이는 교회 성장에 위협다는 걸 보여 주는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특히 교회 내 제직(장로·안수집사·권사·서리집사) 가운데 ‘교회의 허리’라 할 수 있는 30~40대 ‘서리집사’들의 수가 급감한 것도 눈길을 끈다. 주요 교회에서 서리집사는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원, 주자봉사자 등 교회의 모든 봉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교회의 일꾼’으로 꼽힌다.

통계위에 따르면 서리집사는 지난해 말 현재 60만7000명으로 전년도보다 8100명 가까이 줄었다. 반면 안수집사와 장로는 각각 3239명(4.5%), 909명(3%)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30~40대 서리집사가 안수집사나 장로, 권사 등으로 교회 직분이 이동해 갔지만, 서리집사 빈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 세

련을 추구하는 온라인 서명에 동참한 854명의 명단을 기갑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공동행동에는 감리교 여성지도력개발원, 감리교신학대학교 여성신학회, 기갑 단국여교역

례교인 중에서도 젊은 서리집사들의 유입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국교회의 교세가 빠르게 감소한다는 걸 말해주는 지표”라며 “서리집사는 줄었는데 안수집사와 장로가 늘어난다는 건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끼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교인 수는 줄고 있지만 교회와 목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현재 예장통합의 교회 수는 8984곳으로 전년도보다 141개(1.6%) 늘었다. 목사 수 역시 1만 9302명으로 전년도보다 590명(3.2%) 늘었다.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 등 교회 내 중직자 비율도 3~5% 증가하면서 한국교회 전체가 전반적으로 노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회, 장신대 신대원 여학우회 등 97개 단체와 강남향린교회, 거룩한 말씀성서교회 등 15개 교회가 동참했다.

“세월호 배후에 구원파” 비판 정동섭 목사 승소 법원, 구원파 측 손배소 기각

기독교복음침례회(유병언 구원파)가 사이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인 정동섭 목사를 상대로 교단 비방 등으로 피해를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단국(권사 이종광)은 11일 ‘정 목사가 1987년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 및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의 배후에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수차례 해 명예훼손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다’며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이 정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신행일치가 최고의 선교전략”

선교지도자 초창세미나, 강사 마이클오 국제로잔위 대표

“좋은 전략이 있어도 말과 삶이 불일치하면 선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교 전략이다.”

마이클 오 국제로잔위원회 대표는 ‘신행일치(信行一致)’가 최고 선교전략임을 강조했다.

한국로잔위원회(의장 이재훈 목사)는 9일 서울 서초구 은누리교회에서 ‘로잔운동과 한국교회의 선교적 역할에 대한 성찰과 전망’을 주제로 한국교회 선교지도자 초창 세미나를 개최했다.

로잔운동은 ‘우리는 복음전도와 사회참여를 상반한 것으로 여긴 것을 뒤우치며 두 가지가 모두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을 고백한다’로 요약되는 ‘로잔언약’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이 언약은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1차 로잔 대회에서 선포된 이래 세계 복음주의권 선교전략의 한 축인 ‘국제로잔복음화운동’(로잔운동)으로 이어졌고, 70년대 이후 한국교회 선교 방향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한국계 미국인인 오 대표는 ‘글로벌 로잔운동의 역사와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로잔운동은 다양성과 복잡성이라는 시대의 도전 앞에서 전 세계 기독교 네트워크를 연결시키며 세계 선교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도 10도와 40도 사이 지역에 미전도종족과 빈곤인구 90%가 살고 있어 우선적으로 선교해야 한다는 ‘1040창(1040window)’ 이론과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를 연결해 진행하는 ‘디아스포라 네

EBS, 초등생용 동성애 카드뉴스 제작

네이버 온라인 학습 콘텐츠 블로그에 ‘우리들의 친구...’ 올려

교육 전문 공영방송 EBS가 초등학생을 위한 동성애 카드뉴스까지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EBS는 지난 7월 21일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스쿨잼 블로그’에 ‘우리들의 친구 성소수자’라는 11장짜리 카드뉴스를 올려놴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7일 현재 접근을 차단해 놓았다. 스쿨잼 블로그는 EBS가 네이버와 공동으로 만든 초등학생용 온라인 학습 콘텐츠로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359만명이 방문했다. 하루 방문자만 2만명이 넘어 초등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콘텐츠다.

국민일보 취재 결과, 카드뉴스에는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의 부도덕한 성행위가 종종 받아야 할 사랑의 형태처럼 표현돼 있었다. 카드뉴스엔 또 4명의 만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남학생은 ‘내 몸은 남자지만 마음은 여자야’ ‘난 여자의 마음을 갖고 있어’라고 말한다. 여학생도 ‘내 애인은 여자야’ ‘난 동성이 좋아’라고 소개한다.

EBS는 만화 캐릭터 상단에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는 비난하지 말고 서로 각자의 감정을 존중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써 놴다. 현재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 난치병인 에이즈가 유행하고 있다는 등의 객관적·공익적 정보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성 관념이 형성되기 전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전환

트위크’가 모두 로잔운동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로잔운동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발제한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사무총장 출신 한정국 선교사는 “1974년 당시 로잔언약 초안을 쓴 세계적인 신학자 존 스토틀는 ‘균형 잡힌 기독교’란 틀을 내세워 보수와 자유주의 진영 양쪽의 장점을 묶으려고 했다”며 “이는 당시 보수와 진보라는 흑백논리로 양분됐던 한국교회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고 분석했다.

한 선교사는 한국교회가 ‘복음전도 대 사회참여’라는 이분법에서 극단적으로 분열하지 않은 것을 로잔운동의 긍정적 영향으로 평가했다. 그는 “보수진영은 영혼구원을 강조하면서도 인권·환경·노동운동에도 관심을 가졌고, 진보진영은 교회가 가진 영혼구원의 기능을 이해하면서 서로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로잔위원회 의장인 이목사는 환영사에서 “로잔운동이 겸손의 영성을 먼저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다”며 “진정한 교회갱신운동이 되려면 겸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잔운동은 창립 50주년이 되는 2024년 4차 로잔대회를 준비 중이다. 2차 대회는 89년 필리핀 마닐라, 3차 대회는 2010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됐다. 한편 한국로잔위원회는 오는 11월 6일 영국 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를 초청해 ‘성경에서 나타난 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수술까지도 미화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EBS는 “성소수자 중 하나인 트랜스젠더는 태어난 성별과 반대되는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몸과 마음의 성별을 하나로 맞추기 위해 성전환 수술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성전환 수술이 마치 퍼즐을 맞추듯 잘못을 바로잡는 시술인 양 소개한 것이다. 수술의 위험성, 불규칙한 호르몬 분비, 수술 후 생식기관과 신체구조에 나타나는 부작용, 정신적 폐해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카드뉴스 마지막에는 ‘동성애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버리자’면서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까지도 ‘편견’으로 치부하는 듯한 내용도 담겨 있었다.

EBS는 카드뉴스 문제점을 지적하는 학부모에게 보내는 답변문에서 “해의에선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교육에 포함하는 추세이며, 어느 정도의 내용은 청소년들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호관 건강강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는 “해의 사례를 무조건 따라갈 거면 총기 소지나 마약 복용까지 허용해줘야 한다”면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EBS가 비판을 무릅쓰고 동성애 옹호 콘텐츠를 내놓는 이유가 뭘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성애를 꼭 알고 싶다면 보건직 위원회와 사회적 혼란 등 폐해도 똑같이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냈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 목사가 표현한 내용들이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주요 동기가 목적이 종교의 잘못된 점을 비판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같은 비판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 목사의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포함돼 있긴 하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에 합치하거나 진실에 합치한

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 목사의 발언) 주요 내용이 이단이란 무엇이며 이단에 어떤 종류가 있고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며 구원파의 교리가 기존 기독교의 그것과 어떻게 다르고 그로 인한 폐해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라며 “성경의 이론적 분석에 많은 지면을 할애함으로써 나름대로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금수원에서 10만명의 구원파 신도가 다 잡혀가도 유병언은 내가 지킨다’는 플래카드 등을 내걸고 수사기관과 대치했던 사례를 제시했다.

“교회 내 성폭력 근본 대책 마련하라”

교계 여성단체 한목소리...기감본부 앞 시위

교회 내 성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기독교여성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최근 연이은 목회자들의 성 추문에 근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교회 여성들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교회내성폭력OUT공동행동’(공동행동)은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목회장 전명구) 본부 앞에서 ‘그 목사는 성폭력 가해자!’란 플래카드를 내걸고 교회 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시위를 진행했다.

공동행동은 시위에서 최근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구속된 유병청소년사역자 A목사를 면직하고 목회를 중단시킬 것을 기갑 측에 요청했다. 또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교회법을 마련하고 목회자와 교인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도를 맡은 홍보연 기갑 양성평등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그 동안 반복된 성범죄 피해자들을 돌보지 못한 것을 참회한다”며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우리 사회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시위에 동참한 류성미(23·여·장신대 신대원 1학년)씨는 “한국교회가 교회 내 성폭력으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며 “온정주의로 대처하는 걸 멈추고 성범죄 문제를 바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외쳤다.

최소영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기획정책실장은 “교회 내 성폭력은 한 교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에 만연한 문제”라며 “기감 외 대 교단 신학생들과 여성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이날 성폭력 대책 마

mission 선교의 창 (86)

선교를 위한 타문화 이해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선교와 문화의 관계는 뗄 수 없다. 선교를 언급함에 있어서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다.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文化)는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 양식이나 상징 체계를 말한다. 인간이 주어진 자연환경을 변화시키고 본능을 적절히 조절하여 만들어낸 생활양식과 그에 따른 산물들을 모두 문화라고 일컫는다.

선교 문화인류학자인 폴 히벌트(Paul Hiebert) 교수는 문화 차이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을 하였다. “

시간 지속되면 문화충격이 일어나게 되고 현지 인과의 관계가 훼손된다.

둘째로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비 성경적인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선교사는 현지문화를 주장하는 사단의 전략을 간파함으로써 현지인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 1974년 개최된 세계 복음화 대회에서 작성된 로잔언약(The Lausanne Covenant)은 인간문화와 관련하여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 바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인간의 문화 속에는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이 분명히 있다. 또한 인간은 타락한 존재

땅에 인간의 기존 문화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예수는 1세기에 아람어를 모국어로 하는 팔레스타인에서 평범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주님은 위엄 있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다. 평범한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성장하며 율법을 배웠다. 유월절과 같은 연중 축제에도 참석했으며 유대역사를 공부했다.

바울도 타 문화를 존중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전9:19).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접근 방법을 다양화 했다. 그는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막히는 것을 원치 않았다.

5. 타문화권 선교를 위한 전도자의 자세

선교신학자 데이비드 헤셀 그레이브(David Hesselgrave)는 타 문화권에 들어가는 선교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주었다.

“선교사는 말하기(speaking)보다는 듣는 일(listening)에, 평가(evaluating) 하는 것보다는 이해(understanding)하며 관찰(observation)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잠시 만이라도 자신의 판단(judgement)과 편견(presuppositions)을 내려놓고 현지인과 현지문화를 그렇게 만드는데 영향을 준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요인들을 이해하고 느껴보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타 문화권 선교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 그곳 백성들은 토착된 문화의 영향 속에 있다. 상대방의 의식구조가 어떠한지 아랑 곳 없이 일반적인 복음선포는 걸들기 싫다. 따라서 타 문화권 선교를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육신적(Incarnational Ministry) 태도와 사역이 필수적이다.

맺음 말

복음은 문화 변형적이다. 복음은 어떠한 문화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또한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그의 행하심이다. 그러나 복음이 조문화적인 것일지라도 그것은 인간 문화라는 그릇에 담겨서 전달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결국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 문화에 의해 포장되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진다.

복음은 문화를 통해서 표현될 수 있으며, 풍요롭고 다양한 방법으로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전달되어야 한다. 문화를 알면 선교가 보인다. 선교사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하고 선교의 하드웨어를 구축했다고 할지라도 선교지의 문화를 모르면 결단코 선교 사역에 성공할 수가 없다.

언어 속에는 그들의 문화가 녹아있다. 선교지의 특수한 문화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 어쩌면 선교란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로 가서 그들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것은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모범을 보이신 그대로이다.

song007@hanmail.net



cmf-9월 정기 모임을 가진 뒤 기념 촬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그래서 행복해”

CMF선교원 9월 정기예배에서 양병순 선교사 설교

지난 9월 9일 오후 5시 CMF 선교원 강당에서 50여 명의 선교사들과 가족들이 모여 9월 정기예배를 드렸다.

뜨거운 찬양으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김철민 장로(CMF선교회 대표)의 인도로 박종진 선교사(이집트) 기도예 이어 양병순 선교사(카자흐스탄)가 말씀을 전했다.

양 선교사는 ‘행복한 사람’(신 33:29)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자가 바로 선교사다. 주님이 시키는 사역만 하고 있었는데 주께서는 나의 필요를 채우시며 사역을 감당케 하셨다. 비록 나의 환경과 조건들은 내세울 것이 없지만 나는 행복한 선교사다. 왜냐 하

면 주님의 관심과 눈이 머물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간증과 함께 말씀을 전했다.

한편 이날 예배를 마치고 김영호 선교사(예멘), 임만리 선교사(대륙), 스티브 모리스 장로(영맥 설립자), 윤주형 선교사(멕시코), 윤수잔 선교사(멕시코) 등이 등단해 선교에 대한 간증을 나누었으며 주최한 CMF선교원이 준비한 만찬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에 앞서 지난 주 김철민 장로와 스티븐은 영국에서 선교사 2세들을 위한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다.

(기사제공 CMF 선교원)

아시아교회들 선교적 다짐 담은 ‘사명선언’

아기협 창립60주년...10월 12-16일 미얀마서 선교대회

태국 치앙마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가 다음 달 12-16일 미얀마 양곤에서 ‘상생의 여정: 아시아에서 진리와 빛을 향한 예언적 증언’을 주제로 아시아선교대회(AMC·Asia Mission Conference-엠블럼)를 연다.

아시아선교대회는 아시아 각국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에큐메니칼 선교의 방향을 전하는 선교전략회의다. 이에 따라 대회에서는 아시아 선교를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 성서연구 등이 진행된다. 또한 매일 두 차례 각국 교회가 주관하는 특별 예배도 이어진다. 대회는 아시아 교회들의 선교적 다짐을 담은 ‘사명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대회 기간 중에는 CCA 창립 60주년 기념예배도 열린다. 양곤의 미얀마제일침례교회에서 15일 드려지는 기념예배에는 미얀마 민중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여사와 틴 초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다.

선교대회를 주최하는 CCA는 1957년 창립된 동아시아기독교협의회(EACC)에 뿌리를 두고 있는 에큐메니칼 선교단체로 100개 회원교회와 17개 국가 교회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과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 복음교회가 회원이다.

CCA 매튜스 조지 추나카라 총무는 “선교대회와 CCA 60주년 기념예배를 통해 선교에 대해 깊은 토론이 진행될 것”이라며 “선교대회를 기점으로 아시아의 교회들이 더욱 큰 헌신을 다짐하는 동시에 시대가 요구하는 선교 과제와 비전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오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베: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벧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410)361-1235, Fax.(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새벽기도회: 오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목, 금, 토, 일: 오후 8:00 Tel.(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1부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Fax.(323)665-0046 주일부흥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 오 예 배: 오후 8:00 금, 목, 금, 토, 일: 오후 8:00 금, 목, 금, 토, 일: 오후 10:45 Tel.(704)877-8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양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206)527-0981, Fax.(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sattle.org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702)749-9829, Fax.(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nychurch.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전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4:00 금요예배: 오후 7:30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사택.(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org	앵커리지열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철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부흥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영양예배: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미션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254)634-9705(H), (254)501-4933(C) 1000 E. Valeriano Memorial Blvd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2)9141-4447 Fax (702)9141-4448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15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www.jkc.org Tel. (800)461-7600 Fax (800)461-7611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오 예 배: 오후 7시 새 기 도 회: 오후 5시 30분 (월-토) Tel.(253)536-6675, (253)888-9249 6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0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양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215)927-0630, Fax.(215)927-0643 1700 W. Chalfont Ave., Philadelphia PA 19102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필리핀 민다나오섬

8월 초부터 공사 시작함

요즘에 학교 기숙사 옆에 조그만 사무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처음 세울 때가 2009년이었고, 2010년 6월부터 정상적인 학교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학교 전체 담장 공사는 2017년 3월말에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일 전부터 학교 기숙사 옆에 사무실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학교 안에 사무실이 없어 서류와 장부들이 여기저기에 있다 보니 어느 땐 도서관에서 사무실로 임시 사용, 어느 땐 안호실에서, 어느 땐 기숙사 거실 책상에서... 사무실이 완성되어야 서류, 장부, 복사기, 컴퓨터를 정리 정돈해서 놔두어야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림빠 마을은 시내보다 모래와 자갈이 원산지와 아주 저렴하고 인건비도 싸지만 시내에서 자재들을 일일이 제가 사가지고 가야해서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이제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공사 마지막까지 공사비가 조달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7월에 한국에 가니 한국은 목수 하루 일당이 20만원이고 여기 학교 지역 목수 하루 일당은 5달러(한국돈 6천원, 필리핀돈 250페소)입니다.

이제까지 학교는 저와 일꾼들이 직접 공사하였는데, 공사비용이 마련돼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한 손길을 통해 채워주셨습니다. 어느 땐 현탁, 준탁이 등록금을 못 내더라도 공사에 비중을 두다보니 아이들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밀린 등록금을 내야지 중간고사 시험을 볼 수 있다고 말한 경우도 많아 그때마다 기도를 하였었습니다. 이제까지 학교 공사를 한 사진입니다. 모든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이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현재 상황

지난 8월 초부터 시작한 학교 안의 사무실 공사는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데 재정이 바닥이 나서 지붕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지붕을 올려야 다음 공사를 하나하나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의 처음 건물
을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건축 재정이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지 않았지만 늘 기도로 먼저 시작하고 진행하여 이제까지 왔습니다. 늘 하나님의 신실
한 인도하심으로 계셔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조만간에
다시 공사가 재개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까지 진행된 공사 사진입니다. 지금이 우기철이라 매일 오후에 장대비 같이 많은 비가 내려 지붕을 얼른 올려야 벽돌이 부슬 부슬 부스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우숙 종족 선교
오정윤 선교사
tak@hanmail.net

박해와 선교현장 (1)

[편집자주: 본지는 한국 오픈도어가 제공한 박해지에서 발췌한 “박해와 선교현장”을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박해받는 선교현장의 생생함을 읽으며 독자 여러분의 선교적 도전을 기대합니다.]



라오스(Laos)는 박해지수 64점을 기록해 2017년 세계박해순위(World Watch List, WWL)에서 24위에 올랐다. 지난 해 기록은 58점에 29위였다. 라오스 국민들의 생활 전반적 수준이 상승했으며, 특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서 두드러졌다. 폭력 수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

- 종교: 불교(67%), 정령신앙(33%)
- 인구: 약 7,038,700명, 기독교인: 225,000명
- 박해정도: 극심함, 박해순위 24위
- 수도: 비엔티안(Vientiane)
- 주 박해요소: 이슬람교의 탄압(Islamic oppression), 독재정치(Dictatorial paranoia)

민들의 생활 전반적으로 압력 수준이 상승했으며, 특히 가족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측면에서 두드러졌다. 폭력 수위는 작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

라오스의 박해상황

1. 박해원인

공산주의 및 후기 공산주의에서 비롯된 타압(Communist and post-Communist oppression): 라오스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여전히 시행하고 있는 5개 나라 중 하나로, 외국 특히 서양 국가로부터 오는 영향력에 극도의 반감을 보인다. 공산당은 국가를 통제하기 위해 소수 집단인 기독교인을 비롯해 사회 전반에 걸쳐 무지막한 압력을 가한다. 기독교인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그늘이 외국인의 침자 내지는 국가의 적이라고 여긴다. 기독교 자체도 공산주의를 위협하는 서구 사회의 사상이라고 여겨진다. 라오스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언급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 한다. 마치 암묵적인 지침을 따르듯이 당국에게서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종종 기독교인에 대한 사회적 적대적 정서들을 이용해 그들을 감시하는 것을 정당화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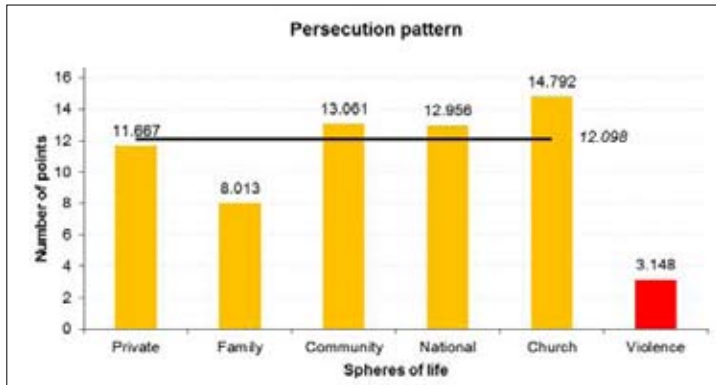
로 알려져 있다. 때로는 촌락 지도자들이 관료들을 선동해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도 한다.

종교적 국수주의(Religious nationalism): 라오스는 가장 오래된 불교 종파인 소승불교(Theravada Buddhism)를 국가적으로 신봉하는 다섯 개 나라 중 하나로, 사회적으로 불교 사상이

3. 박해 받는 교회의 유형들

세계박해순위(W.W.L) 분류에 해당하는 모든 라오스 교회들이 박해당하고 있다.

△해외 이주민 기독교 공동체:
심지어 외교부 직원을 위한 교회



깊이 뿌리 내려 있다. 라오스와 불교는 불가분한 관계이므로 국가 전반에 걸쳐 항상 불교의 지위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현지 불교 지도자들은 국가의 순수성을, 정치인들은 국가 통제를 추구한다. 사회를 통제하고 현상 이타를 방지하고자 하는 이들의 욕구가 서로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까지도 경찰의 감시 등 압력을 받고 있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 로마
카톨릭교회, 라오스복음주의교
회, 안식일재림파와 같은 역사적
기독교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교
회임에도 감시를 받는다. 라오스
복음주의교회는 지도자 선출과
기독교 문서 인쇄에 있어서도 제
한을 받는다.

△불교나 토속 신앙의 배경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기독교인 공동체: 현지 정부와 가족, 친지 그리고 이웃들에게 가장 많이 박해당하고 있다. 개종자가 한 명 생겨날 때마다 기독교 세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 또한 개종 기독교인들을 박해한다.

2. 박해배경

라오스는 1975년 이래 라오스 인민개혁당의 통제 아래 있어왔다. 당원들의 친척과 지인들이 이루는 촘촘한 네트워크는 국민들이 느끼는 압력을 더욱 가중시킨다. 소수 집단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2016년 당 내부에서

뉴욕셋새마교회

담임목사: 이지웅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0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08:00
새벽기도회: 오전 05:30
금요기도회: 오후 08:00
한국학교: 오전 9:30(토)

Tel. (516)520-2004, nygo4tgc@yahoo.com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www.nygetsem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초야: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www.moakyang.com	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운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찬양: 오전 10:00 화, 토 Tel. (718)265-255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fkkc.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05: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Fort Washington, NY 11050 www.fkkc.org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yahoo.com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 아 예배: 오전 10:45 수 요 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917)73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토) http://www.cpcny.org Tel. (718)279-2757, Fax. (718)279-1823 154 Old Westbury Road Westbury, NY 1156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문사)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18)461-7835, CP.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itok.com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수, 3주)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영아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 요 찬 양 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찬양기도: 오후 5:00 영아예배: 오후 1:00 Tel. (718)787-8999, bonhrhee@hotmail.com 70 Plandora Rd., Manhasset, NY 1103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400, Fax. (718)358-7789 145-17 Franklin Ave., East Elmhurst, NY 11355 www.kapcc.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1:30 NCF영어	미주크리스천신문 &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세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6893-9754, 68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714종교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3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5:30(화-토) (1,2,3, 부 스웨나니 설교) Tel. (595)211-574-965 E-mail: hanmin@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	--	---	--	---	---	--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40)

8. 안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안인교회 교육을 위한 성경적 통합 교육 이야기 (1)
(Biblical Integration and Education in the Korean American Church)

정 신 애 박사
(사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는 한인 교회교육을 위해 “성경적 통합교육”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음을 지난 이야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학교 교육 혹은 실제적인 미국 내 기독교 사학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의아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적 통합은 기독교 학교에서 일반 과목들을 가르칠 때 성경적인 측면을 도입하여 가르치는 것 아닌가?” 라고 질문하면서 말합니다. 또한 사실 많은 사역자들과 교회 교육자들도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데, 도대체 어떻게 성경에다 성경적 통합을 한다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하면서 말합니다.

이 모두 매우 타당한 질문들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진리를 근간으로 하여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모든 지식의 원천과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가르침입니다. 사실 이 말들이 피상적이고 잘 이해되지 않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이에, 성경적 통합교육에 대해 체계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주는 자료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는 쌍둥이 자매인 교사 데보라 카펜터(Deborah Carpenter)와 그래픽 디자이너 겸 잡지 편집자인 다나 빈셔(Dana Bincer)에 의해 만들어진 “성경적 통합”이라는 웹사이트(http://biblicalintegration.com). 이 웹사이트에서 카펜터는 성경적 통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top or bottom of a worksheet), 문법 시간에 성경구절로 도해하는 것(Diagramming a Bible verse in grammar class), 말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 후에 말이 나오는 성경구절 한 절 혹은 모든 절을 읽는 것(Reading one or all the Bible verses on horses after a horse unit), 기독교적 삶에 대한 비유로서 과학실험을 이용하는 것(Using a science experiment as an analogy to the Christian life), 학급에서 한 번 혹은 여러 번 기도하는 것(Praying once or several times a day in class), 학급예배를 드리는 것(Having class devotions), 과학시간 중간 중간에 대중 대중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언급하는 것(Casually referring to the greatness of God during a science

성경적 통합교육: 과목전체 및 각 소단원 주제가 어떻게 하나님 진리를 계시하고 있는가 그 연관성, 즉 그 각각과 하나님의 진리 간 연결고리 찾아 가르치는 것

나가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는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성경적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에 오늘 이야기에서는 “성경적 통합교육”의 현재 통용되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적 통합교육은 사실 교회교육 환경에서는 단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는 개념입니다. 이는 주로 기독교 학교교육 컨텍스트에서 사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공립학교의 실패는 많은 기독교 가정들을 마음 아프게 했었으며, 자녀교육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하도록 만들어왔습니다. 이에 교회와 기독교 교육자들과 기독교인 부모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독교 학교들을 설립하기에 이르렀으며, 많은 시행착오들을 거치면서도 이제는 꽤 탄탄한 기독교 교육철학에 기반한 기독교 학교들이 발전해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한 기독교 학교들은 공립학교들과 차별적으로 특별히 기독교적인 교육을 하고자 애써왔는데, 바로 그 중심에 “성경적 통합교육”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적 통합교육이란 한마디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과목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성경적

인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경적 통합이란 각각의 과목(주제)이 어떻게 하나님, 창조, 인간, 도덕적 질서, 그리고 목적의 성격 혹은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In the genuine sense, biblical integration] is seeing how the topic reveals the character or nature of God, creation, mankind, moral order, and purpose).” 따라서 성경적 통합교육이란 것은 각각의 과목을 가르침에 있어서 그 과목 전체 및 각각의 소단원 주제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고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이며, 특히 그 연관성, 즉 그 각각과 하나님의 진리 간 연결고리를 찾아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일례를 들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의 언어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소통의 도구로 언어를 선물로 주셨다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피상적이라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카펜터가 묘사한 무엇이 성경적 통합 교육이 아닌지를 살펴보면 어쩌면 더 명쾌한 그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것은 “성경적 통합”이라 여겨질 수 없습니다. “노트 처음이나 끝에 성경구절을 써 넣는 것(Including a Bible verse at the

lesson).” 카펜터가 열거한 성경적 통합 교육이 아닌 것의 예들은 역설적으로 사실 어찌 보면 조금 낮은 단계의 성경적 통합교육의 방편으로 이해될 수도 있음을 기억한다면, 성경적 통합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위의 예들은 진정한 의미의 성경적 통합이 전제로 하는 해당 주제와 하나님의 진리 간의 “연결고리”가 매우 부족하며, 이 때문에 위의 예들과 같은 경우들은 일반적으로 성경적 통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밑도 끝도 없이, 맥락 없이, 성경 구절들 혹은 잘 알려진 기독교적 기치들을 갖다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 통합교육이 될 수는 없으며, 이러한 방법으로는 성경적 통합교육의 목표와 의의를 달성하기도 힘들다 하겠습니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성경적 통합교육의 목표와 의의에 대해서 상세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sinaichung@yahoo.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선과 덕의 사람(롬16:1-3)찬408장

그리스도인은 무엇 하는 사람인가요? 첫째, 선을 베푸는 사람입니다(1). 여기서 선이란 자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즉, 자기보다 남을 더 귀히 여기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은 그의 희생을 감수한 열매입니다. 선행 중 선행은 복음을 증거하여 이웃의 마음을 생명으로 바꾸기에 공창의 별처럼 빛나게 됩니다. 둘째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선행을 바탕으로 나타난 덕

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선행이 약한자의 약점을 대신 책임지는 것이라면 덕은 이웃이 바로 서도록 끝까지 뒤를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선 자는 자연히 그의 놀라우신 덕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벧전2:9). 그의 복음만이 선과 덕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사가 됩니다.

화 성경 기록의 목적(롬16:4-7)찬278장

사도는 모든 생각과 생활의 중심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 성경을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 교회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교훈”(4) 곧, 성경66권은 교회로 영적 지식 가운데 자라게 하려는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누립니다. 다른 말로 성경은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

는 자가 복됩니다. 둘째, 하늘의 소망을 누리게 하려함입니다(5). 어떻게? 인내의 분인 그리스도를 따를 때 성경을 통해 하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성경 안에 거함인 신자의 삶입니다(6-7). 성경 위에 서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수 할례의 추종자이신 그리스도(롬14:8-13)찬190장

성경의 구원은 모든 인류 속 자기 백성의 구원 곧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유대주의 장벽으로 혼란에 떨어진 그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확인시킨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이 보편주의 성격을 가짐을 보인 것입니다. 첫째,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케 하시려고 할례를 추종하게 하신 것입니다(8).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율법이라 내게 하심으로서 그 안에 있는

자를 구원시키기 원하신 것입니다. 둘째,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게 하심입니다. 복음은 이방인의 구원을 포함합니다(9). 셋째, 구약의 보편주의적 구원을 성취하는 발판이 되게 하셨습니다(9-13). 5번의 “열방”이란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방인의 구원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유대주의 장벽을 부수신 본래의 복음에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목 복음의 제사장 직분(롬12:14-16)찬259장

사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보았습니다. 율법의 제사장이 아닌 복음을 위해 전제를 바치는 이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한 것입니다. 그 이상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이방인을 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도 감사하며 그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니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이방인을 산제물로 드리는 자리가

지 나가는 것입니다(16).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음이 생활의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성령의 사람이 되는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삶은 성령 안에 거하는 삶 곧, 성령충만한 삶을 가리킵니다. 그 목표에 이르도록 충성된 복음의 제사장이 됩니다.

금 사도의 자랑(롬14:17-21)찬353장

이런 비전을 가슴에 가지고 일하는 사도는 자신의 사도권을 다시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엡2:20). 그래서 그는 위로부터 나온 계시 위에 모든 것이 세워진 것을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는 이방인이 복음에 순종한 것을 자랑했습니다(18). 압록 같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빛이 된 것은 기적 중 기적입니다. 둘째, 이 구

원사역에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 친히 일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 말, 행위, 표적, 기사 그리고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케 된 열매를 자랑했습니다(19). 일꾼은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의 헌신된 복음의 삶이 세상에 알려져 복음화 되는 일은 그만의 자량이 아니고 바로 우리 시대의 교회와 나날 꿈이고 열매이어야 합니다.

토 세계 복음화의 비전(롬15:22-27)찬355장

사도의 소아시아 복음증거는 온 세상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대 세계 수도인 로마를 향해 복음증거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첫째, 그는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여러 번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22). 그렇게 좋은 복음이라도 주께서 허락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명도 연단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둘째, 그는 로마뿐 아니라 서바나까지 가려는 꿈을 가진 것은 복음으로 온 세상

을 채우려는 마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음 자체의 성격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은 글로벌 인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셋째,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바울은 현실에 성실했습니다(25-28). 큰 꿈을 가졌다 하여 현실을 도피하는 것은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 교회의 연보를 예루살렘교회에 심부름하는 일에 성실했습니다. 그런 심금을 따라갑시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ran.org Tel. (82)2-490-7000, Fax. (82)2-562-5770 서울시 중랑구 왕우로 340-4 (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6:00(매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36-943-86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장기도 동신시 수자목 목장인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강서구 북동로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06-999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로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5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쉼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2-568-0191, Fax. (82)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문로 416-4 (404-270)	승등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랑구 인사로 137 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왕로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Tel. (82)2-48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5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대호로 172 (239-0138) www.shincheon.or.kr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3142-6080, Fax. (82)2-3648-4188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9-45 www.eshinchon.org	안암 제일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82)2-926-4508 서울시 용인구 이촌로 50-1 www.anamjeil.or.kr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주일제3부예배: 오전 11:40 주일제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9: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 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암로 415 www.yangkog.org	양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981, Fax. (02)942-6982 (136-831) 서울시 강북구 장위로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02)32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482-3538,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흥로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로 302-67 (140-031)

제 12차 여성 지도자교육 세미나

캄보디아국제신학교 부설 여성지도자연수원

지역별 참석자 분석표			
번호	지역(군)	교회수	학생수
1	프레이 비히어	9	19
2	반뜨미은째이	4	4
3	깡뽕 톨	1	1
4	스와링	21	37
5	프레이 빙	2	6
6	빠맘봉	7	7
7	따케오	2	2
8	컨달	1	1
9	고라채	2	3
10	깡뽕츠낭	44	73
11	통크놈	5	5
총		98	158

캄보디아 기독교 여성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 12차 여성 지도자교육 세미나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캄보디아국제신학교(ITCS, 총장 김현)에서 열렸다. 캄보디아국제신학교 부설 여성 지도자연수원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재학생 67명, 신입생 91명, 졸업예정자 14명 등 포함 158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종전의 등록보다 많은 총 11군 지역의 98개 교회에서 20대에서 60대까지 158명의 학생이 참가했으며 이중 신입생은 91명이 등록했다. 연수원생들 중 92명이 헌물을 들고 참여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헌물 꾸러미를 보자기에 써서 들고 오는 나눔을 실행하는 모습

들이 아름답다(쌀, 채소, 과일 등). 그들은 여성 강사를 더 필요로 한다. 교수 3명과 강사 2명으로 구성되어 연수원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개혁신학을 배경으로 균형 있고 효과적인 가르침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뜨겁게 기도하며 은혜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ITCS 학생들이 풀타임, 파트타임으로 봉사했으며, 식사 봉사자들 등 곳곳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 감사한다. 세미나 중에는 비가 많이 와서 식당과 부엌이 물에 잠겨 연수원생들과 신학교 학생들이 모두 좁은 임시 로비에서 식사를 하는 등 불편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 강사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한편 여성지도자연수원 원장에 오금옥 박사(D. Grace Oh), 총무에 김헬렌 사모가 임명됐다. (기사제공: 캄보디아 여성지도자연수원)

기/도/칼/럼

때를 기다리는 믿음



박현승 목사
(캐나다서부장로교회)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심을 때와 거둘 때가 있다. 울 때와 웃을 때가 있다. 슬퍼할 때와 웃을 때가 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은 430년 만에 해방의 감격을 맛보았다. 바벨론 포로에서는 70년 만에 본토로 귀환하는 희쁨의 기쁨이 있었다. 가뭄이 심했던 엘리야 시대에는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단비가 내렸다.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다. 범사에 다 때가 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치 아니하고 승리하려면 반드시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질것을 믿고 인내해야 한다.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 역류 31개월 만에 석방되었다. 감사 또 감사이다.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날이 오기를 고대하며 기도했던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석방을 위해 애써준 캐나다 정부, 관계 부처에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목사님 가족과 큰 빛 교회 성도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그동안 눈물 뿌려 기도하며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을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셨다. 임 목사님의 석방을 바라보며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면 희망가운데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된다. 소망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을 쓰게 된다.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해도 오�히려 기뻐하며, 고난을 믿음의 시련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 기도하다가 낙심말자. 때가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지 말자.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하자.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그 때와 기한은 우리의 알바가 아니다. 다만 믿음과 인내로 기도하며 기다릴 뿐이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전3:1).

이메일: bible66@gmail.com

〈7면에서 계속〉

이민교회가 지닌 난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떤 해결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느냐? 에 대한 분명한 답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민교회의 갈등과 분쟁이 지속되는 원인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신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상대의 그릇된 주장을 수용하거나 양보하지 않기에 다른 생각들이 부딪혀 마찰을 일으키는 것이다. 결국 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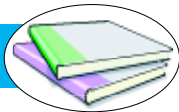
적 방법에 대한 열정이 더할수록 문제가 확장되고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 루터의 고민과 해결책: 십자가 신학
(1) 1517년 10월 31일, 95개 조항
루터를 분리주의자라로 매도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구교 측에서는 루터를 아주 반항적이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한 인물로 평가한다. 종교개혁 500주년의 출발일은 1517년 10월 31일이다.

이 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과연 그가 '95개 조항'을 발표하면서 개신교의 출발을 세상에 알렸을까?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다. 루터는 도미니크 소속 신부인 요하네스 테첼(Johannes Tetzel)이 면죄부 구매를 부추기는 설교에 대해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동전이 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자들이 빠져나온다는 설교를 들으며 미혹을 당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루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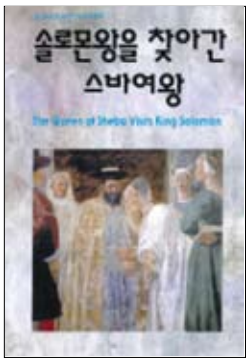
에게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마인쯔(Mainz)의 대주교였던 알브레히트(Albrecht)가 저술한 소책자 '면죄부 지침서'를 읽은 뒤였다. 그가 모든 일을 뒤에서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러나 루터는 '95개 조항'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구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독립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개혁의 의지를 이곳에 담지 않았다. covenantcho@yahoo.com

책 소개



“솔로몬 왕을 찾아간 스바 여왕”

저자 정권수 선교사



온두라스 라 모스키티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권수 선교사가 에네켄 한인후손후원재단(이사장 김종명) 후원으로 출간한 소설 “솔로몬

왕을 찾아간 스바여왕”이 최근 재 인쇄됐다. 정 선교사는 1988년 캐나다 프론티어에서 출판한 “아마겟

돈”(Armageddon, Gerat R. Jeffey)이라는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아 이 책을 쓰게 됐으며, 이스라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언약궤가 솔로몬

왕 때 스바 여왕을 통해 에티오피아로 옮겨갔다는 내용을 보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필자는 소설 속에서도 언약궤가 에티오피아에 있다는 기록들을 4곳에 삽입했다. 정 선교사는 소설이 주인공들은

한국인 제자 미첼 교수 등을 등장시켜 이스라엘 역사를 '공범'을 몰 같이 정의를 하수같이'(암5:24) 세우게 하고 싶었다고 후기에 밝혔다. 물론 역사속 인물과 지명, 사건과 장소 등 모든 것이 기록과 일치하

었다고. 이 책은 비록 소설의 형태를 빌었지만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에티오피아로 간 언약궤가 다시 돌려져 장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의 힘찬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기원”하는 저자의 열망이

에티오피아에 언약궤가 있다는 가정 하에 쓴 소설

모두 가명으로 히브리대학 당대의 석학인 페론 교수, 그녀의 딸 사라, 경제 각료 출신인 여호수아 랍비, 그리고 페론 교수 밑에서 공부한

지 못하는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한 구절이라도 성경에서 낱말을 찾아 참고 문헌들과 대조하며 맞춰나가는 애를 쓴 고된 작업이

담겨있다. ▲저자 연락처: ksjung818@gmail.com
(유원정 기자)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